

2017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례집

# 공생과 협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다

원·하청 안전보건 세어링



## CONTENTS

---

발간사 .....	04
사업 소개 .....	06

# SAFETY ALWAYS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 제조업

모두 안전한 동행

# 01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 .....	16
삼표시멘트(주) 삼척공장 .....	28
현대파워텍(주) .....	40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 .....	52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64
유한킴벌리(주) 김천공장 .....	76
(주)효성 창원공장 .....	88

## 서비스업

함께 꿈꾸는 내일

# 02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	102
(주)광주신세계백화점 .....	114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	126
<b>부록</b> .....	<b>140</b>
2015 ~ 2016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모기업	

발간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합니다.



#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일터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보건책임의 전가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대형)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수립과 모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층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업의 지원과 관심, 예방중심의 안전문화와 자율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도 KOSHA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등을 통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모기업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현장의 위험성 등 안전보건정보를 전달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의 책임 등을 이유로 재해예방 조치와 사고대응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생명존중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모기업 주도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 공생협력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약 1,000개소의 모기업과 8,500개소의 협력업체가 참여하여, 협력업체 재해율이 매년 약 12%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철도·물류·통신·항만하역 등 재해 취약업종 모기업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에서는 모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조성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소개

### 사업 목적

- 협력업체는 모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원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업체 재해감소 및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의식 강화

### 사업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사내협력 포함) 및 사내·외 협력업체

### 추진경과

- ('12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 ('14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
-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에 따라, '14년부터 일부 서비스 및 운수·창고업\*을 추가
- \* '13년 서비스(유통, 음식숙박) → '14년 서비스(7대업종)·운수·창고업 → '16년 서비스(전체)·운수·창고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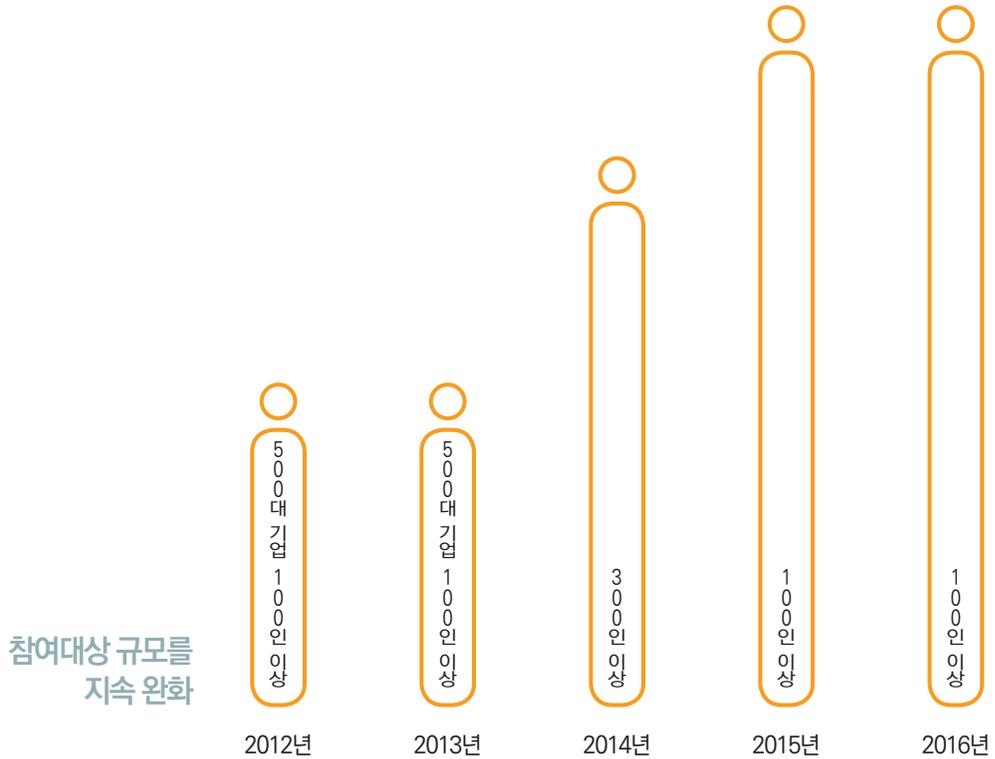
연도	대상 업종
2012 ~ 2013년	제조·전기·통신·서비스업(유통, 음식숙박업)
2014년	제조·전기·통신·서비스(7대 업종)·운수·창고업
2015년	제조·전기·통신·서비스(7대 업종)·운수·창고업
2016년	제조·전기·통신·서비스·운수·창고업

※ 7대 업종 : ① 음식숙박업 ② 도소매업 ③ 건물관리업 ④ 위생및유사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 ⑥ 보건및사회복지사업 ⑦ 사업서비스업

-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의식 강화 · 확산을 위해 참여대상 규모를 지속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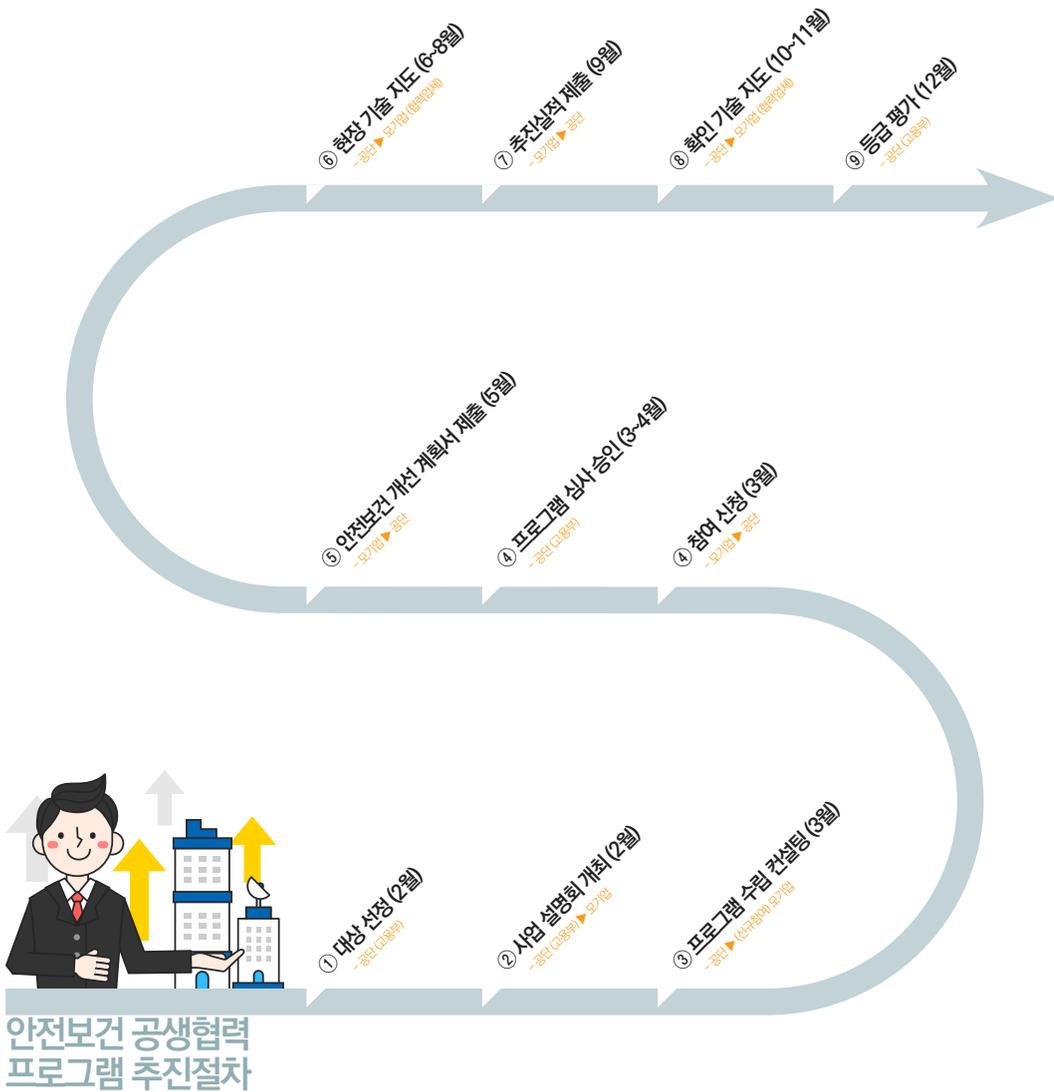
\* '12년 500대 기업 → '14년 300인 이상 → '15년 100인 이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대상 규모	500대 기업 100인 이상	500대 기업 1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100인 이상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소개

##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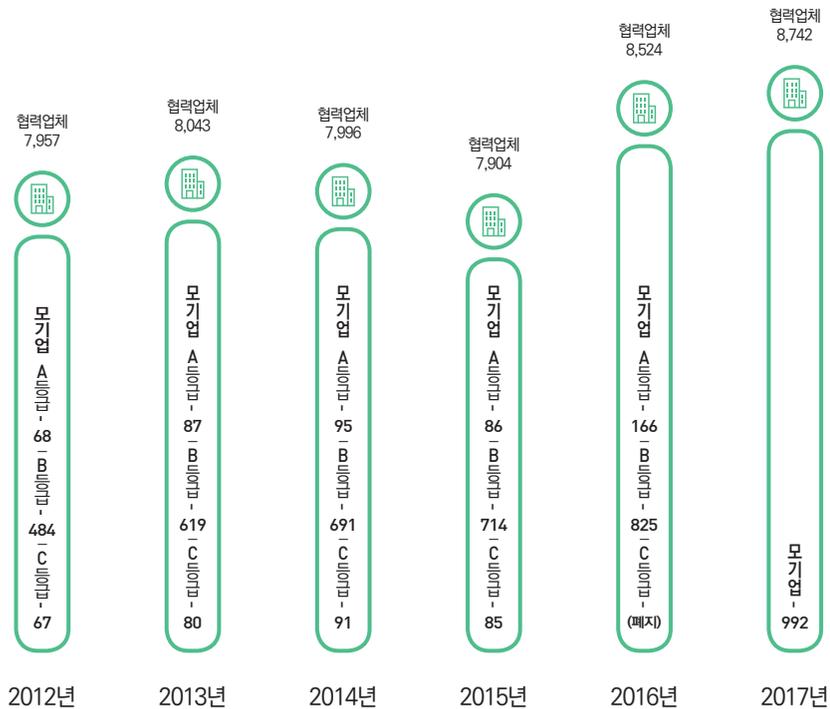
- 
- ① 대상 선정 (2월) : 100인 이상 모기업(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 대상 업종 : 제조업(전기업 포함), 서비스업(운수·창고·통신업 포함)
  - ② 사업 설명회 개최 (2월)
  - ③ 프로그램 수립 컨설팅 (3월)  
\* 신규참여 예정 사업장에 프로그램 수립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을 컨설팅
  - ④ 프로그램 접수, 심사 및 승인 (3~4월)  
- 협력단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지원 등 사업계획 심사(10일 이내 보완)
  - ⑤ 유해·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 (5월)  
- 모기업-협력업체 공동으로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계획 수립
  - ⑥ 현장 기술지도 (6~8월) : 모기업의 50%  
- 모기업-협력업체 스스로 단계적·지속적 공생협력 틀을 마련·실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협력체계 진단 및 협력업체 시범 위험성평가 등 지도
  - ⑦ 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 (9월)  
\*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자체 수립한 프로그램에 따른 추진실적을 일괄 제출
  - ⑧ 확인 기술지도 (10~11월) : 모기업 전수(100%)  
- 현장 기술지도시 제기된 유해·위험요인 개선여부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현장 확인
  - ⑨ 사업 평가 및 등급(A, B) 부여 (12월)  
- 자체평가(일선기관), 상위 본평가(지역본부)를 통해 평가 후 등급(A, B) 부여

## 공생협력 참여 현황 및 사업성과

### 참여 및 등급평가 결과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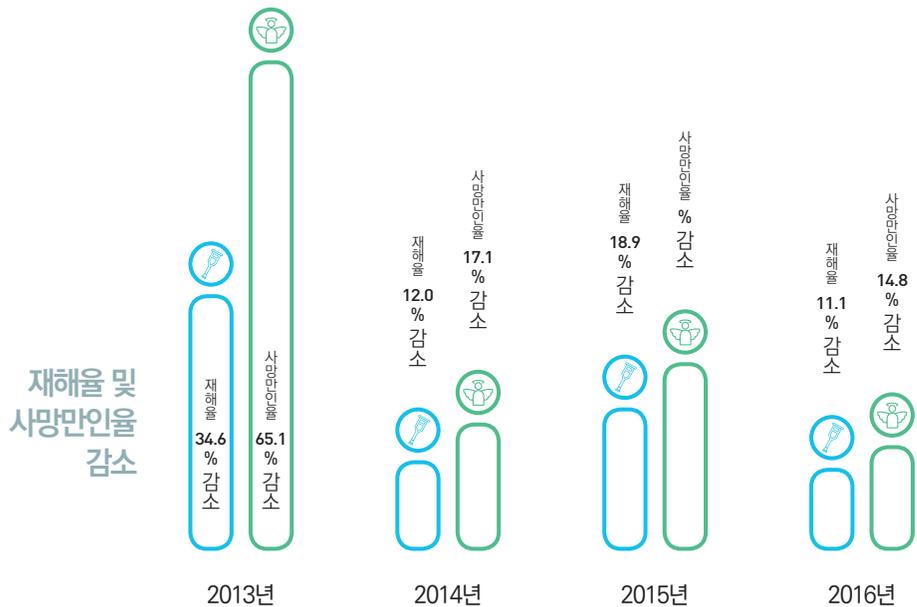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A등급	68	87	95	86	166	
B등급	484	619	691	714	825	
C등급	67	80	91	85	- (폐지)	
모기업(계)	619	786	877	885	991	992
협력업체(계)	7,957	8,043	7,996	7,904	8,524	8,742



## 사업 성과

- 협력업체의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감소에 기여

연도	2013년 (2012년 대비)	2014년 (2013년 대비)	2015년 (2014년 대비)	2016년 (2015년 대비)
재해율	34.6% 감소 (0.26→0.17)	12.0% 감소 (0.25→0.22)	18.9% 감소 (0.37→0.30)	11.1% 감소 (0.18→0.16)
사망만인율	65.1% 감소 (0.63→0.22)	17.1% 감소 (0.35→0.29)	25.3% 감소 (0.95→0.71)	14.8% 감소 (0.27→0.23)



## 공생협력 참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인정·인증 현황

### - [모기업] 최초 사업 참여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 사업장 수	619	786	877	885	991
최초 참여 사업장 수 (비율)	619 (100.0)	236 (30.0)	92 (10.5)	90 (10.2)	110 (11.1)

###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인정 현황 (3월~12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 사업장 수(A)	7,996	7,904	8,524	
대상(100인 미만) 사업장 수(B)	6,326	7,021	7,593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수(C)	980	548	837	
비율	C/A	12.3	6.9	9.8
	C/B	15.5	7.8	11.0



## - [협력업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현황 (3월~12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 사업장 수(A)	7,996	7,904	8,524	
대상(50인 미만 제조) 사업장 수(B)	2,175	2,129	2,257	
요율제 인정 사업장 수(C)	1,001	612	633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장 수	625	417	348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수	376	195	285	
비율	C/A	12.5	7.7	7.4
	C/B	46.0	28.7	28.0

▷ '14 ~ '15년 요율제 인정 사업장이 그 다음년도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총액 : 26억원(추정)  
 ('15년 감면액) 약 6.7억원(848개소), ('16년 감면액) 약 19.3억원(1,183개소)

## - [협력업체] KOSHA 18001 인증 현황 (3월~12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참여 사업장 수(A)	7,996	7,904	8,524
인증 사업장 수(B)	121	71	106
사외 협력업체 인증	18	13	14
사내 협력업체 인증	103	58	92
비율(B/A)	1.5	0.9	1.2

모두 안전한

동행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례집

# 01 제조업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

삼표시멘트(주) 삼척공장

현대파워텍(주)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유한킴벌리(주) 김천공장

(주)효성 창원공장

## 원·하청 공생협력으로 진정한 동반성장을 꿈꾸다

군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 공장 전경은 보기에도 웅장하다. 생산된 굴삭기가 정돈돼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2010년 10월 문을 연 군산공장은 10년이 채 안 되는 젊은 공장으로 굴삭기와 휠로더 등 대형 건설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두산그룹 전체 사업장 가운데서도 임직원 평균 연령대가 가장 낮은 사업장에 꼽힌다. 경험과 노하우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잦을 것으로 생각될 법도 하지만 이런 예상은 현실과 정반대다.

2013년 EHS(환경보건안전) 시스템 평가에서 두산그룹 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사업장 안전 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2015년 국민안전처로부터 '공간안전 인증',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을 각각 받는 등 우수한 안전 환경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 손동연 사장



설립일 1937년 6월 4일 (군산공장 준공 : 2010년 10월)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85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

#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5조 7296억 원 (두산인프라코어 전체 기준)



주요 생산품  
굴삭기, 휠로더 등



근무인원  
240명



협력업체 수  
7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총 341명 (사내 125명, 사외 216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의 대표 안전상품은 '안전관찰제'다. 전 직원이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한다.

위험성을 평가해서 위험요인을 낮추는 활동을 전 직원이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사소한 위험도 실시간 포착해 개선

군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은 굴삭기와 휠로더와 같은 대형 건설장비를 한해 4,000대 만들고 90% 이상 수출하는 대기업이다. 군산공장에는 사내에만 4개 협력사가 입주, 사내협력사 직원만 해도 총 12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도장작업, 엔진조립, 물류운반 등 세분화된 분야를 맡고 있다. 이 공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수백 명 근로자의 안전이다. 군산공장은 QDC에 S를 앞세워 SQDC를 안전의 핵심 관리 포인트로 삼고 있다. 어느 생산업체든 생산시스템에선 공장의 낭비 요소를 제거한 QDC를 중요시한다. QDC란 품질 Quality, 납기 Delivery, 비용 Cost을 말하는 것으로 그 경쟁력이 곧 생산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곳 군산공장에서는 각각의 제조 공정마다 QDC 아닌 SQDC를 내세우고 있다.





QDC 앞에 'S'가 나서 있는 것이다. 이 S가 다름 아닌 'Safety' 즉 안전이다. 다른 곳에서는 '안전제일'을 구호로 내세우지만 이곳에선 SQDC가 안전제일을 대신한다. 이곳 작업자들은 이 SQDC를 통해 항상 안전을 의식한다. 안전 최우선의 SQDC 관리 체계를 통해 군산공장의 입주 협력사 뿐만 아니라 외주협력사까지 작업자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개선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의 SQDC가 낳은 대표적인 관리체계는 '안전관찰제'다. 안전관찰제는 작업자 스스로 위험성을 찾아내면서 개선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관리자는 물론이고 전 사원이 매일 위험성평가표와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일 점검 결과 리뷰를 통한 공정 집중관찰 및 지도가 실행된다.

중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사고 위험률이 높은 만큼 매일 아침 안전관찰제를 실시한다. 협력사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함께 스스로 위험한 부분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다. 각 협력사 파트별로 위험요인에 대한 생생한 제보가 이어지고, 각 회사의 안전지킴이들이 회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한다. 이렇게 발견된 위험요인들은 곧바로 모기업 EHS팀에 전달된다. 위험요인은 바로 전산시스템에 올려 담당부서에 알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3년부터 해마다 1,000건 넘게 위험요소를 발굴했고, 발굴된 위험요소를 개선한 비율은 94%에 이른다.

허리와 손목을 다치기 쉬웠던 무거운 핀 운반 작업을 기계로 바꿨다. 두 사람이 메고 당겨야 했던 화물 운반대는 회전 컨베이어를 설치해 버튼 하나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즉각적인 개선은 곧 작업자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고, 품질 향상과 납기 단축에도 영향을 줬다. 자연스럽게 본사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의 경제적  
지원부터 근무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까지 진정한 동반성장을 꿈꾸고  
있다.

### 전 협력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

2016년 5월 2일,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 조립라인의 한편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물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협력사 직원이 도장장 컨베이어 위에 쓰러진 것이다. 이를 본 동료 직원 한 명이 당황하지 않고 재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약 3분간 쉬지 않고 흥부를 압박하자 쓰러졌던 직원은 약간의 피를 토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다. 평소 철저한 안전교육이 없었다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였다. 이는 두산인프라코어(주)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일환 중 하나인 비상사태 대응훈련으로 나타난 성과였다.

2012년부터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한 두산인프라코어(주)는 공생협력단을 구성해 위험성평가, 안전관찰제,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도, EHS 관리역량 평가 등 본사의 SQDC 안전 프로그램을 협력사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동반성장 펀드도 조성하여 협력사 이자율 감면으로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안전보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는 협력사의 공감대 부족으로 참여도가 저조했다. 더군다나 인력이나 규모 면에서 영세하다 보니 ‘납기일 맞추기도 바쁜데, 안전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떻게 해서든 협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발대식, 협력사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킨 이후에 실무자를 불렀다. ‘안전’에 대한 운영진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다음에 진행해야 효과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무자에게는 위험성평가 교육 이후에 직접 시행해 보고, 차후 현장 개선을 통해 업무 역량을 높였다. 이외에도 매주 수요일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업무를 중단하고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갖는 한편, 협력사에서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지원했다.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가 돈이나 안전장비 등 물질적으로 도와줘서 나타나는 안전관리 효과는 그 순간뿐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험성관리 평가예요. 이 위험성관리 평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끊겨도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2016년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제조업 부문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EHS 우수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EHS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HS UCC 공모전'을 열어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직원들이 안전사고 대응법과 무재해 실천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발표하는 행사였다. 임직원들은 안전사고가 났다는 가정하에 대처법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표현했다.

생산현장이 익숙하지 않은 신입사원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도 남다르다. 안전책임자는 노란색 조끼, 일반 직원은 남색 작업복,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라임색 형광 조끼로 시각적 차별화를 뒤 안전 취약 인원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공장의 안전 활동은 지역사회와 협력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군산공장 직원들이 군산 직업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미래 안전보건 감독자 양성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에 강사로 나서 군산 지역 전체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군산공장 내 전경



“

두산의 협력사가 작업 환경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탁월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에 둔 경영 방침은 구성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철학적 선택임과 동시에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적인 선택이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 안전은 우리 모두의 공동 의무!

지난 5년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바로 현장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다.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 조창열 차장은 “계획된 안전관리 프로그램대로만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제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먼저 스스로없이 필요한 안전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군산공장 구성원들이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활동을 통해 팀워크, 즉 인화를 다져 더욱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이 지금까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추락, 협착, 감전과 같은 재래형 안전사고 감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꾀할 전망이다.

출하를 기다리는 중장비





2014년부터 실시한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위기대응 훈련은 사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안전생활 습관이 개인의 일상에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공생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까지 사외협력사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위험개선이 가능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단지 일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안전을 챙길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의식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찾고 해결하려는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의 안전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슬로건





“

협력사의 안전이 바로  
품질 경쟁력!

”



## CEO'S INTERVIEW

###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 김 용 화 공장장

두산 Credo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안전과 환경입니다. 이는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되어야만 우수한 제품과 기술, 서비스도 만들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나 비용 절감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절대로 우선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산만의 안전경영 방침이 바로 SQDC(Safety, Quality, Delivery, Cost)입니다. 각각의 제조 공정에서 안전을 제일 우선 가치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저희와 함께하는 협력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협력사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곧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더군다나 중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조그만 부주의에도 오는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은 관심과 잔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비를 많이 지원해도 설비가 100%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은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계획 단계부터 협력사를 참여시켜 기획하고, 본사와 협력사 간 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 스스로 자체적인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고, 위험성을 평가해서 위험요인을 낮추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안전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협력사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향한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MINI INTERVIEW



진테크  
박문용 과장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그것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엔 타이어에 공기 주입을 하다가 과주입으로 터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모두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경험이었죠. 그동안은 작업자가 감으로 공기압을 맞춰 주입하던 것이었는데, 잠시 작업자가 다른 일을 하던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두산에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요청했고, 곧바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런 개선들 하나하나가 우리 작업자들의 안전과 업무 효율에 직결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하고, 안전교육을 받을 때에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여기 입사하기 전에 단독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장비가 낡아 교체시기가 되어도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업체 규모가 작다보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쉽게 결재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 스스로도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처음 두산에서 매일 아침마다 안전 유해요소를 체크하라고 했을 때도, 어차피 바꾸주지도 않을 거 뭐 하러 귀찮게 이런 걸 시키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저희가 낸 의견이나 요구들이 90% 이상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안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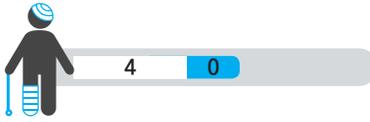
J산업  
김주철 로딩반장

저희가 처음 두산에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안전이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말라” 입니다. 전에는 관리자나 작업자나 일 하는 데만 집중했지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면서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실천하다 보니 점차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안전교육을 수요일마다 하는데 처음에는 귀찮게만 생각하고 듣기만 했지요. 지금은 안전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엔 작업환경이 위험해도 원래 하던 일이니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체크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장비를 다루다 보니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평상시 이런 작은 안전 유해요소를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결국은 회사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Mini Infographics

2011 □ 2016 ■



공생협력 프로그램 도입 전 / 후

협력업체 재해율 - 도입 후 감소



공생협력 프로그램 5년간 이행 중 3회 이상 A등급

2016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 A등급 (전국상위 10%)

최근 4년간(2012~2015)  
중요위험성 585건 발굴, 584건 개선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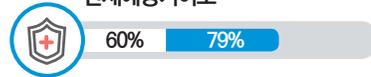


위험성 평가 평균 개선율

2013 □ 2016 ■



프로그램 만족도



산재예방기여도

건강검진프로그램 - 만족도 향상

지적이 아닌 코칭으로  
공생 협력업체 별 평균 10건 코칭



안전보건기술지도



2016년 1건 구조

심폐소생술 시행 인명 구조

## 작업장 사고 체험 통해 안전의식 수준 높이는 삼표시멘트

세월호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한 순간에 벌어지는 사고는 많은 것을 앗아간다. 사고는 발생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에서는 더욱 더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 삼척에 위치한 삼표시멘트도 마찬가지다. 시멘트를 만드는 이 곳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며 새로운 작업에 바쁘게 투입되다 보니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삼표시멘트는 2012년부터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 표 이 정 수 사장



설립일 1957년 6월 15일



위 치 강원도 삼척시 동양길 20 삼표시멘트(주) 삼척공장

# 삼표시멘트(주) 삼척공장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6160억 원



주요 생산품  
시멘트, 크링커 및 2차 제품



근무인원  
협력업체 포함 1060명



협력업체 수  
19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협력 · 도급업체 400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2년

“

‘사고는 한 순간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제조업에서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높다. 사고는 한 순간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망 등 중대한 재해 위험이 도사리는 삼표시멘트(주) 삼척공장

연간 13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시멘트(주) 삼척공장은 석회석을 채취하는 채석공정과 석회석과 각종 부원료를 혼합하는 원료 공정, 원료에 열을 가하여 크링커를 생산하는 소성공정, 소성된 크링커를 시멘트화 하는 완성공정으로 구분된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정과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벨트 협착사고, 추락사고 등의 큰 재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안전의식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였다. 특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삼척공장에서는 협력업체들과 모기업이 각자 업무에 대한 무관심과 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삼표시멘트(주) 삼척공장에는 많은 협력업체가 근무하는 만큼, 각 설비의 여러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제조업은 중대한 재해의 위험이 높은 분야다. 물건을 신고 나르거나, 적재할 때 날아와 맞는 사고로 인한 사망 재해는 7%, 화재나 폭발로 인한 사망재해는 11%,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19%, 감김이나 끼임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제조업 전체의 21%를 점유할 정도로 제조업의 특성상 한 순간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삼척공장이었다. 시멘트 업종의 특성상 소성시설, 분쇄시설, 운송시설 등 다양한 설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인도 다양하다. 수년간 함께해 온 협력업체라고 하더라도 각 설비의 여러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이전에는 여러 유형의 사고들이 종종 발생했다.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협력업체 직원들과 모기업 직원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했다. 다양한 설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작업 및 보수의 필요에 따라 업체들이 투입되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 방법 선택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삼척공장은 이러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협력업체의 안전을 위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이전에 사전 작업허가제도를 운영해 작업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매월 1회 협력업체 사장 및 관리자와 함께 사고 사례 및 불안전 작업 사례를 공유했으며, 각종 안전교육 자료의 지원과 맞춤형 교안 제작, 안전용품 및 표지판 지원 등 물적, 인적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다. 1995년 품질경영시스템, 1996년 환경경영시스템, 2006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하고, 2000년에는 동종업종 최초로 무재해 3배수를 달성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012년부터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2016년에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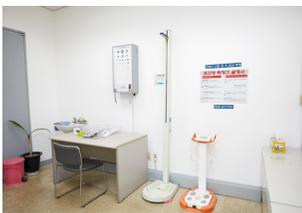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체험형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운영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획득하는 등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으로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효과를 보았고, 협력업체의 중대재해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재해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 정확한 위험수준 파악과 사고 체험으로 안전의식 높여

삼척공장은 많은 덤프트럭과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곳이다. 크고 노후한 장비들이 많은 이곳은 작업량이 많은 만큼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삼척공장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협력업체 작업사항의 위험수준을 파악했다.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를 위해 각 업체별로 고유작업을 분배해 공정을 분류했고, 해당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업체별로 분배된 공정의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또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체험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삼척공장은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만들었다. 시멘트공장 옆 사무실 건물 지하에 위치한 안전체험관 입구에는 ‘사고는 한 순간입니다. 벌써 잊으셨나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문구다. 안전체험관은 삼척공장 직원들과 이곳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체험하는 체험관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경험해 보면서 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삼척공장 환경안전팀이 만든 곳이다. 안전체험관에는 위험예지훈련, 양손망치타격, 운반작업, 전선과열화재, 감전, 안전화-안전모 미착용시 충격 체험, 끼임이나 밀림 등 협착체험, 사다리 전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있다. 안전체험관은 조직 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모기업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전원이 직접 안전사고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챔피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 챔피언이란 현장경험이 풍부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훈련하도록 해 재해예방 전문가로 활동하는 제도이다. 안전 챔피언은 고위험 작업관리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모기업에서는 생산팀, 자원팀, 기계팀, 제품팀, 품질팀 등 관리감독자 12명, 협력업체는 합동기계, 포유드림, 성원건설, 신일산업, 태성산업 등 관리감독자 15명이 안전 챔피언으로 선정됐다.

환경안전팀 박재호 팀장은 “안전 챔피언 제도는 단순히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직무를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며 “챔피언들에게는 많은 권한과 혜택을 부여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T.B.M 위험예지훈련도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 새로운 작업에 임하기 전 오전에 모여 어떤 위험이 있을지 파악하고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사고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율이 높다. 더불어 협력단협의회를 월 1회 열고, 공생협력단 활동 경과를 토의하고 있으며, 재해근절을 위해 아차사고집을 작성하고 공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주 1회 환경안전팀과 공생협력단, 노동조합이 함께 모여 출근시간대 간식과 유인물 등을 배부하는 등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하나입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재해를  
근절하는 그날까지 투자와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전 직원에 의한 작업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관찰제도 (VFL)를 실시하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15대 고위험요인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사항 안전관찰을 실시해야 한다. 일부만 참여해서는 작업장의 안전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이 체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 무재해 달성 1040일을 목표로

삼척공장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작업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봤다.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전에는 협력업체에서 보수 작업을 할 때 모기업의 요청 사항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 이후에는

사내 안전체험장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안전지식과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업체별로 작업 공정을 분류하면서 해당 공정과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작업을 요청하면 협력업체에서 작업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험요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시간에 쫓겨 빨리빨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프로그램 추진 전에는 재해율을 제외하고 협력업체 작업의 위험 수준을 수치화해 평가하기 어려웠지만 프로그램 도입 후 재해율 뿐 아니라 위험성평가를 통한 일반적인 작업의 위험성도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협의회를 통해 협력업체 사장 및 관리감독자, 종업원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기여했다.

프로그램을 추진해 도내에서 최초로 2년 연속 공생협력 활동 최우수 사업장에 선정되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무재해를 유지 중이다. 또 협력업체 중 5개 업체가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을 획득했고, 안전수칙 위반내역도 크게 감소했다.

삼척공장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무재해를 1040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박 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안전 챔피언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의 안전직무 스킬을 높이고 안전 챔피언에 대한 포상과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척공장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재해율 감소와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개발하고 도입한 독자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호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과 상호 경쟁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 향상, 동기 부여 등 안전관리와 공생협력 부분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 직원들의 응급조치 능력 강화를 위해 CPR 마스터 과정을 진행해 응급조치와 보건분야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외 안전체험장





“

재해율  
ZERO가 목표가 아닌  
일상이 되는 것

”



## CEO'S INTERVIEW

### 삼표시멘트(주) 삼척공장 이정수 사장

저희 삼표시멘트는 “모기업과 협력업체는 하나”라는 Motto 아래 협력업체와 공생하는 안전경영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안전문화와 안전의식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와 개선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이 질적으로 향상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안전체험교육은 협력업체 종업원의 안전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강사와 교육생에게 좋은 호응을 얻으며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대화 제도는 협력업체 사장 및 안전보건 Champion과 모기업 임원 및 팀장 간의 1:1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 직원에 의한 현장안전관리제도인 안전관찰제도(VFL)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응급조치 능력 강화를 위한 CPR 마스터 과정을 통해 심정지 상황에 처한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최근의 변화들은 앞으로의 우리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시키고, 앞으로 협력업체의 자생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Audit을 통한 벤치마킹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협력업체와 모기업 모두가 안전전문가가 되는 것’, ‘재해율 ZERO가 목표가 아닌 일상이 되는 것’ 등 앞으로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 또한 확고합니다.



### MINI INTERVIEW



삼표S&C  
정수영 소장

공생협력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위험예지훈련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같은 교육으로 직원들에 안전 사고를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위험예지훈련에 임하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쉽게 훈련에 참여하고, 현장에 나가 예방해야 할 것과 불안요소를 미리 체크해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안전사고 체험을 하면서 직원들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수칙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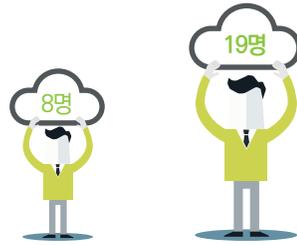
주식회사 창조  
황영민 소장

기존에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형식적이었다면, 프로그램 이후에는 안전체험장 교육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로 사고를 경험하는 체험 교육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작업에 들어가기 전 미팅을 통해 원포인트 위험을 파악하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사고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안전 교육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교육으로 공감도가 많이 높아졌고, 앞으로 좋은 교육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입니다.

# Mini Info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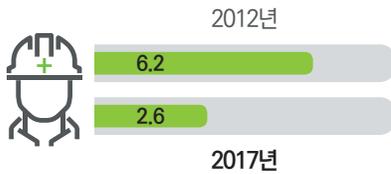
2017년 4월  
무재해 7배수 달성



모기업 8명      협력·도급업체 19명

공생협력 협의체 구성 - 27명

5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협력업체 위험도 - 3.6 감소

2014 □ 2017 ■



현재 무재해 유지중

협력업체 재해율 - 감소

최근 5년간(2012~2017)  
785건 개선완료(2017년 103건 개선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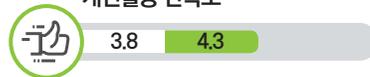


위험성평가 - 개선

5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2012 □ 2016 ■



개선활동 만족도



협력도급업체 종업원 프로그램 - 만족도

# 우리 모두 다함께 '안전문화 10대 안전수칙'을!

우리 회사 출입이 힘들다고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인증입니다.

안전교육을 십여 분 받고 테스트를 통과한 후 들어간 현대파워텍(주) 운동장에서 왓지떨린 환호가 들린다. 점심 시간 즈음 모기업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간의 운동 시합이 있는 모양이다. 운동이 끝난 후 함께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그냥 말로만 하는 기업 간 상생문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로 가족처럼 어우러지는 훈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기업문화는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니 어떻게 형성된 문화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 표 김해진 부회장 / 정일수 생산총괄 대표이사



설립일 2001년 3월 14일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958 현대파워텍(주)

# 현대파워텍(주)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6조 8000억 원



주요 생산품  
자동차 변속기



근무인원  
2107명



협력업체 수  
20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1558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3년

“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모기업  
직원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해  
우수사원을 선정하며 해외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각종 포상 제도를  
운영하며 서로 격려를 한다. 이  
중 최우선이 되는 것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개선이 최우선

현대파워텍(주)에 들어가는 쉽지 않았다. 먼저 담당자와 만날 날짜를 잡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방문 날 도착을 하면 안전교육 동영상을 보며 10여 분간 교육을 받는다. 그 후 테스트 용지를 받아 시험을 치르고서 통과를 하면 방문자 안전수칙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1년 동안 유효한 이 카드를 받고서야 담당자를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는 안전화로 갈아 신어야만 한다. 공장 내 공사가 있어 들어오는 일용직 직원들은 매일 음주측정부터 혈압까지 측정한다. 이런 절차를 번거로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전은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인식이 생기며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대파워텍(주)은 자동차 변속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개 협력사와 6.8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설한 기업이다. 서산 근교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모기업 직원과 한가족이라고 생각하여 매해 우수사원을 선정, 해외연수를 보내기도 하고 각종 포상 제도를 운용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기 진작보다 최우선이 되는 것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신념이기에 특별히 안전보건에 많은 공을 들인다. 20개 협력사는 업종이 각기 다르다 보니 그에 따른 위험요소도 다양하다. 지게차 이동 시 충돌이나 크레인 중량물 낙하, 또는 제조 조립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협착사고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협력업체들도 안전에 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협의체를 운영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보지 못했다.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무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몰라 겨우 마련한 자료를 직원들 앞에서 읽어주는 방식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인지 실질적인 위험평가를 통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미흡해 협력사 직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고예방을 위한 협력사 안전보건 협의회를 만들어 매월 1회씩 운영도 하고, 분기별로 협력사 간 합동안전점검도 시행했다. 또 협력업체 작업공정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등을 지원하며 안전 활동을 펼쳐나갔다. 하지만 협력사 직원이 일하는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까지는 모기업에서 직접 컨트롤 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위험요소를 즉시 개선하니 직원들 신뢰 더 높아져

그래서 협력사별로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OHSAS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현장 소장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이었겠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가치에는 모두 공감했다. 교육도 교육자들이 읽어 내려가던 형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간을 먼저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자재로 빔프로젝터나 스크린 등의 설비를 갖추고 교육내용도 시각자료로 모두 바꿨을 뿐만 아니라, 안전협회를 통해 외부 전문 강사도 지원했다.

안전보건 관련 캠페인



“

지킬 것 5가지는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전 위험확인,  
 작업 전 스트레칭, 규정 속도와  
 안전벨트 착용, 안전작업 허가’

버릴 것 5가지는  
 ‘안전장치 해제금지, 각종설비  
 접근금지, 용량초과 전기설비  
 사용금지, 저장장소 외 흡연  
 음주운전 금지, 운전이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무엇보다도 매일 첫째, 둘째 주 월요일은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고 전 직원이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교육을 받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렇게까지 회사가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하는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직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것은 2016년에 제정한 ‘안전문화 10대 안전수칙’이었다. 안전의 10대 핵심가치를 제정한 것인데, 지킬 것 5가지로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전 위험확인, 작업 전 스트레칭, 규정 속도와 안전벨트 착용, 안전작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버릴 것 5가지로 ‘안전장치 해제금지, 각종 설비 접근 금지, 용량초과 전기설비 사용금지, 저장장소 외 흡연 음주운전 금지, 운전이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지정했다. 이 캠페인을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통해 꾸준히 전개했고,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문자로도 전송하며 전 사원들의 안전보건 의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안전문화 정착 UCC 경연대회와 안전표어 경진대회 그리고 안전결의대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방적인 교육보다 훨씬 효과도 있고 내용 전달도 빨랐어요.”

특히 현대파워텍(주)는 2016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과 서산지역 대기업 6개 대표이사, 53개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하는 ‘민관합동 공생협력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었다. 서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영자층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는 모기업으로서 회사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며, 협력업체의 안전 확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 개선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안전에 방심은 없다고 늘 자각하며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든가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운동 프로그램과 요가 교실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 프로그램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풀고 누적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 1회 의료상담도 펼치고 있고요. 협력업체를 포함해 직원들 80%가 여성이기 때문에 부인과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한방과 양방 모두를 지원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으로 2016년 7월에는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을 비롯한 많은 타 회사의 본보기가 되어 무척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대파워텍(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6년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라 설비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에 약 8억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 또 분기별 무재해 달성 사업장 중 안전관리 우수사 4곳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원하고, 협력사 안전TFT를 별도로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장려했다. 이로 인해 2016년 협력업체 20개사가 모두 무재해를 달성했으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 협력사 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3으로 우수하게 나왔다. 이는 협력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귀를 열고 즉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안전은 행복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

현대파워텍(주)는 ‘잠재위험개선비용’이라는 안전 환경 예산을 확보하고 천만 원 이하의 비용이 드는 개선사항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간결하게 정비했다. 매달 1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니 일 년에 120건 이상의 위험요인이 즉각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것은 어떤 설비 기술이나 공학적 기술



이 필요한지 시간을 갖고 꼼꼼히 점검해 간다. 이제까지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위험요소는 888건으로 이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현대파워텍(주)는 14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20개 협력사가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모두 취득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전관리 협력업체로 상호 공생관계를 이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 업무를 마련하는데 기울인 노력의 결과는 협력업체와 모기업의 신뢰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이러한 회사의 파격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한결같은 노력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A등급 우수사업장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추진대상에서 면제되었지만, 안전에 안심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는 자세로 안전보건 활동을 계속 철저히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안전관리(PSM) 12대 실천과제





그 방안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3단계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재해 제로와 공생협력 프로그램 강화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2018년까지는 문제점 발굴과 지속 개선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또,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별 안전전문가 양성과 기계류 안전 표준사양을 정립하고 안전 활동 고도화 운영 정립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020년까지는 안전관리 글로벌 탑이라는 목표 아래, 협력사 직원 안전문화 정착과 협력사 해외우수기업 벤치마킹 그리고 글로벌 안전법규 통합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법적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이 었다면, 지금은 체계화된 시스템 아래에서 자발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현대파워텍 정문



있다는 신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 개선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에 방심은 없다고 늘 자각하며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안전환경팀 박준인 과장은 밝혔다.



“

한 가족이라는 신념으로  
단 한 건의 중대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

”



## CEO'S INTERVIEW

### 현대파워텍(주)

정 일 수 생산총괄 대표이사

현대파워텍(주)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변속기 전문기업으로, 대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협력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안전관리의 대상을 당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까지 확대,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A등급”우수사업장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내협력사 20개사가 전원 무재해 달성을 성취하며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파워텍(주)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신념으로 단 한 건의 중대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MINI INTERVIEW



(주)이루테크  
김상일 소장

(주)이루테크는 자재 물류 회사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 작업자들은 허리 통증이나 족저근막염에 관해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 후 통증이 있는 직원들을 파악, 모기업이 지원하는 근골격계질환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수가 근육계 질환 상담도 해주고 운동치료가 직접 치료를 도와주다 보니,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족저근막염 환자들을 파악해 모기업에서 안전화나 깔창 등을 직접 지원해주다 보니 발의 피로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모기업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며 직원들의 애사심도 커졌고, 모기업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MINI INTERVIEW



(주)선문  
유일곤 반장

(주)선문은 지게차로 장비나 제품을 날라주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그저 말로만 안전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지만, 매뉴얼이 생기고 그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 전 직원의 안전보건 의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직접 나서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다 보니 책임의식도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게차가 사각지대를 지날 때 적외선 빔을 쬐서 주의를 주는 장치와 안전 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들은 직원들이 직접 제안하여 만든 것들입니다. 그로 인해 제품낙하는 50% 이상 줄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Mini Infographic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초 인증 획득  
사내 19개 협력사 (2014년)



2016 (20개사)

무재해 - 달성

5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2015년

1.60

1.55

0.5 감소

2016년

위험도 - 감소

5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5점 만점 중 4.3 달성

협력사 직원 만족도



2014~2016년 3회 연속 최우수 "A"등급 달성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2011 □ 2016 ■



재해자

4

1

발생일 기준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 현황

# 안전도 소통이 먼저! 원·하청 4년 연속 무재해 달성

한적한 시골 언덕길을 올라 도착한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의 첫 느낌은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하고 반듯한 모범생의 느낌이었다. 현관부터 시작해서 작업장은 물론이고, 체육시설이나 식당, 주차장, 회의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발끝에 허투루 닿는 것 하나 없다. 이런 완벽한 정리정돈은 상우공장의 안전보건과도 닿아 있다.

17년 동안 (주)동부하이텍에서 환경안전을 담당해온 최흥기 차장은 안전에서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언제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은 안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와 위험 요인을 보는 눈이다”라고 말한다.

국내를 대표하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주)동부하이텍은 책임 있는 기업, 좋은 기업의 경영 방침을 지켜나가며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역시 상생 경영의 기본 중 하나이다. 상우공장에서는 안전보건의 모범생답게 소통을 통한 개선을 우선으로 삼았다.



대 표 최창식 사장



설립일 2001년 4월 1일(1997년 - 부천사업장, 2000년 - 상우사업장)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우안길 73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

#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7천 716억 원



주요 생산품  
시스템반도체



근무인원  
785명



협력업체 수  
총 9개사 (사내 7개사, 사외 2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총 239명 (사내 162명, 사외 77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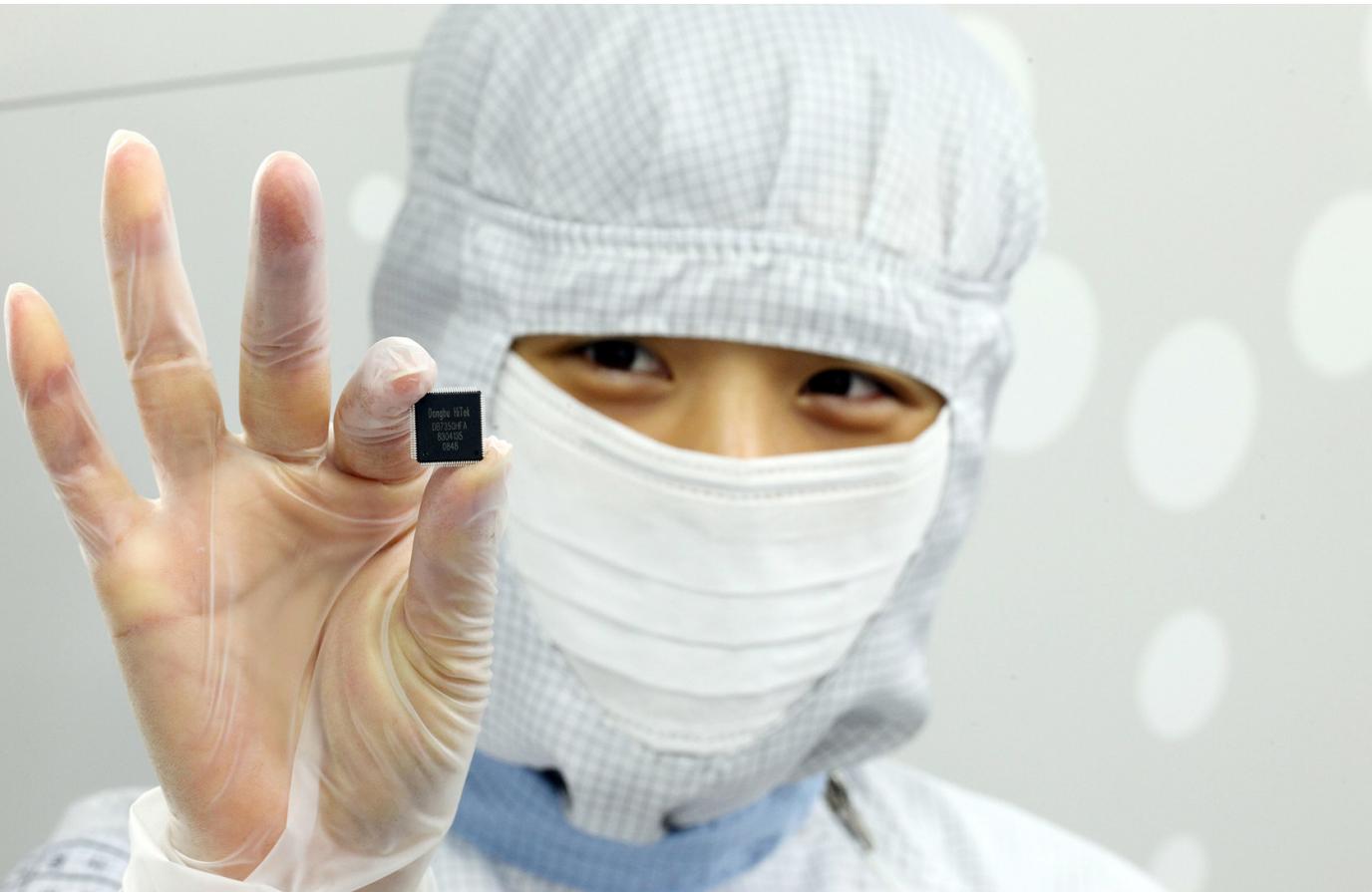
“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에서는 2012년부터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해, 모기업과 협력사 모두 지금까지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다. 그 전에도 재해 없는 사업장으로 알려진 곳이긴 했지만, 직원 전체의 안전 의식에 대한 강도가 세진 것은 소통과 공유 덕분이다.

### 안전에 대한 소통이 안전 예방이다

(주)동부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설계에 맞춰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부천공장과 상우공장 두 군데 사업장에서 특수하게 쓰이는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소량으로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모바일이나 소비가전 제품에 내장되는 전력반도체, 터치스크린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이미지센서를 포함한 각종 센서 등이다.



반도체 칩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 이런 제품을 제조하는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직접 보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제품을 반도체 제조설비를 갖춘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 같은 곳에서 납품하는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우공장에서도 사내 협력사와 긴밀하게 업무 협력을 하고 있다. 사내 협력사는 주로 각종 제조설비 유지보수, Utility 공급 등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상우공장에서는 2012년부터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해, 모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지금까지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다. 그 전에도 재해 없는 사업장으로 알려진 곳이긴 했지만, 직원 전체의 안전 의식에 대한 강도가 세진 것은 소통과 공유 덕분이다.

“상우공장에서 하는 안전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협력사와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쓰고 만든 것이 공생협약체입니다.”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누구 하나의 안전이란 없다. 안전은 모두의 문제이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예방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철벽 방어로 상우공장에서는 ‘무재해 공생협약체’를 운영하고 있다.





공생협의체에서 이처럼 다양한 회의를 열고 있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소통과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안전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내부 감사 평가와 개선,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와 개선 방안, 관련 법규 개정 내용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오가고 있다.

###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상우공장의 공생협의체는 공생협의체장과 간사, 각 협력사 대표자와 관리감독자,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생협의체 정기 회의는 매월 1회이며, 이외 그린뿔회의도 매달 1회 진행하고 있다.

그린뿔 회의란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실무담당자 회의로, 안전에 대한 체질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어떤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할지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안전 담당자가 아니라 현장의 실무담당자가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뿔 회의는 더 실질적이다. 이 회의를 통해 상우공장은 불합리 개선 289건을 비롯해 야차사고도 48건이나 발굴했다. 또한 횡전개 90건, 주요테마활동 24건, 비상대응훈련 39건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공생협의체 회의는 협력사가 안전이 있어 요청할 때나 회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시로 열린다.

공생협의체에서 이처럼 다양한 회의를 열고 있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소통과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안전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내부 감사 평가와 개선,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와 개선 방안, 관련 법규 개정 내용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오가고 있다.

그 외에도 공생협의체 회의에서는 대외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내에서 직접 겪은 안전 관련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기도 한다. ‘저 팀은 이런 것을 잘 하는구나’, ‘우리 부서에서 이런 점은 개선해야겠구나’라는 점들을 솔직하게 주고받는 소통과 공유는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드는 일등공신 중 하나이다.

또 하나 상우공장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 대응 교육과 실질적인 훈련이다.

상우공장의 전체 유틸리티를 365일 책임지는 사내 협력사인 미금이 엔지(주)의 심문한 대표는 상우공장의 안전 의식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가 안전훈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안전은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호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실시 후 모기업에서 실시한 여러 안전 훈련들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 안전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난 후, 모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직원들까지도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어 좋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런 의식 변화가 공생협력 프로그램 실시의 가장 큰 소득이다.

연구시설



“

안전은 단지 근로자가 회사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사안이고, 그것이 더 넓게 보면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 (주)동부하이텍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키려고 하는 안전보건경영의 방침이기도 하다.

### 안전에 대한 대응력을 전 범위로 넓혀라

그 밖에 상우공장은 그간 근로인원 부족과 업무 시간 부족 등으로 연기했던 위험성평가 시행과 인증을 진행했다. 잠재된 위험요소는 없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작업이 더 위험한지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계획해 개선을 실행했다.

또 환경안전보건(ESH) 예산을 수립해 개인보호장비를 협력사에도 지원하고, 작업환경 측정과 함께 사내에 체육시설과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보건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상우공장에는 유독 체육시설이 많은데 헬스장과 탁구장, 농구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단련하자는 의미이다.

사내 운동시설 마련



또 상우공장에서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고, 사내 보건실에 체성분 분석기를 배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자신의 체지방 등 간단한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현미경을 자주 보는 일을 하는 작업자들을 위해서 눈 건강 약을 지급하는 소소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이처럼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유별나다. 상우공장에서는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를 할 때도 보건실에서 약품 상자를 들고 따라온다. 작업하는 동안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족처럼 근로자를 보호하는 마음. 상우공장은 직원의 안전이 한 집안의 가장의 안전이고 가정의 안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안전을 먼저 챙긴다.

이처럼 성실하게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2014년과 2015년에는 미금이엔지(주)와 (주)비엔피엔지니어링을 비롯한 4개 업체가 위험성평가 인증제도를 시행해 인정서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7년에는 전 협력사가 100% 인증제도 시행 완료했다.

상우공장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으로 화기, 고소, 증량물, 정전, 굴착,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건수 총 436건, 안전교육 73건이라는 기록과 함께 4년간 무재해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으로 상우공장은 공생협력 프로그램 시행 평가에서 A등급(전국 10%이내), PSM 이행실태점검 적합판정 등 여러 안전 활동에서 대외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안전은 어느 한 순간에만 국한된 활동이어선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상우공장에서는 안전활동의 범위를 넓혀 업무 공간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 등산 등 전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안전의식이 체질화가 되면, 사내에서 안전을 강조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안전을 챙길 것이라는 의도도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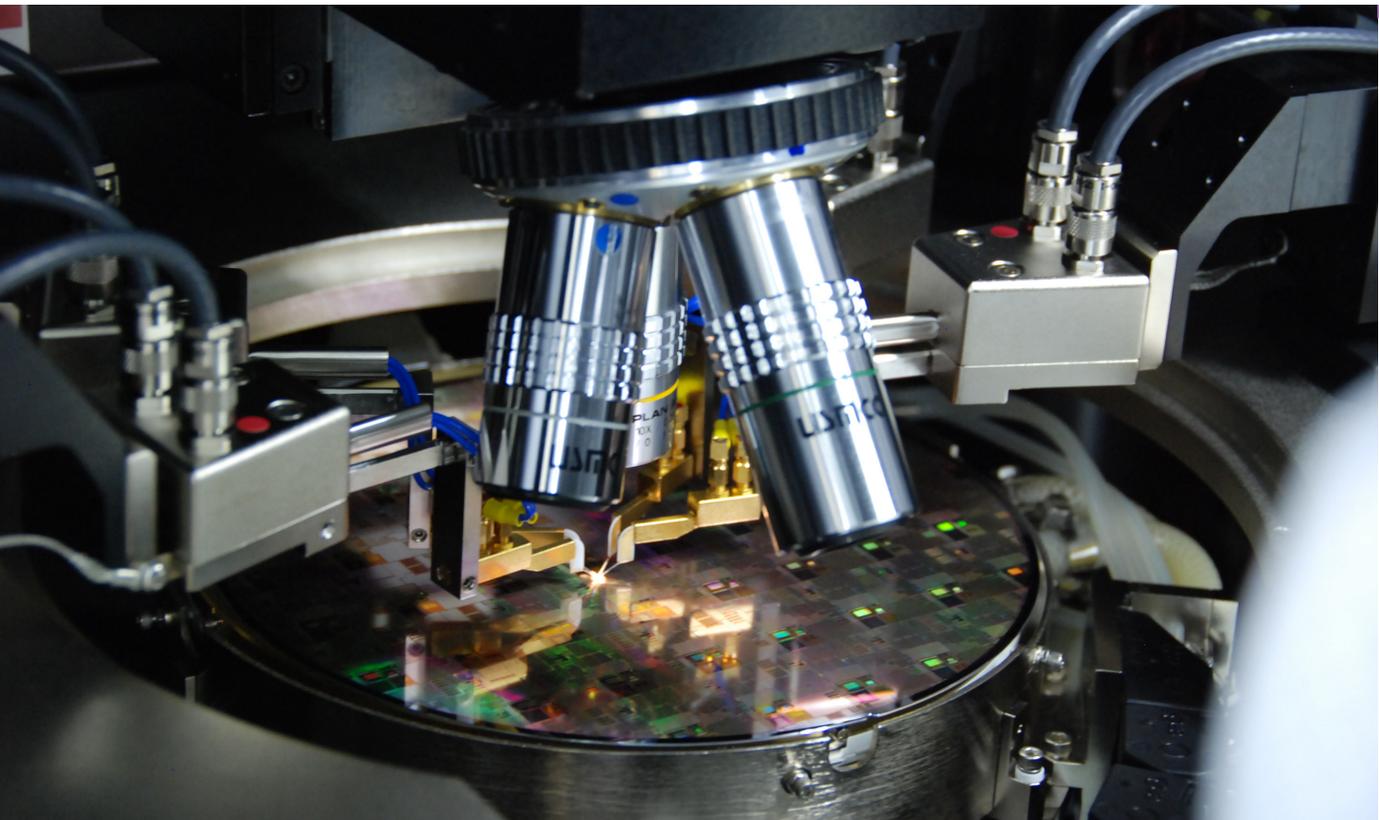




이 효과에 대해 최흥기 차장은 “일상의 위험까지 예지해서 사례를 공유하다 보면 다시 업무에 돌아왔을 때도 안전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다.

안전은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사안이고, 그것이 더 넓게 보면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 이는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려고 하는 (주)동부하이텍의 안전보건경영 방침이기도 하다.

앞으로 상우공장은 사내 협력사뿐 아니라 사외 협력사도 두 곳을 선정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모기업의 직원뿐 아니라 사내외 협력사 직원들이 모두 안전을 생활화 하는 날까지 상우공장의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은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

안전일터  
무재해 사업장의 비결은  
원·하청 공생협력

”



## CEO'S INTERVIEW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

서병윤 FAB장(공장장)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은 2012년도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업무가 바쁘다보니 시행 초에는 작업장에서 “할일도 많은데 귀찮게 하는 또 다른 업무가 추가로 생기는 게 아니냐”는 하소연도 듣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6S를 시작으로 작업표준서 정립, 위험성평가(인증 보유), 현장 위험요소 개선조치를 하면서 점차 작업자의 인식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협력사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사에서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훈련을 매월 시행하여 사고예방, 초동대응, 안전의식 모두 향상했습니다. 현재 상우공장은 PSM(공정안전관리)도 S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P등급 상향하기 위해 모든 업무의 1순위를 안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사에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 사외업체와도 공생지원을 현재처럼 지속 유지하여 안전 무재해 사업장을 지속하여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MINI INTERVIEW



(주)비엔피엔지니어링  
노민수 대표

모기업에서는 공생협약체를 운영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높이자, 저희 사업장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랩 회의에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논하기 때문에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저희 사업장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잘 지켜주는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으로 더 강하게 동기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 방식은 한 달에 한 번씩 두 명을 선정해서 그 달에 안전왕을 뽑는 식입니다. 상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작은 이벤트로도 회사에서 얼마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달이 됩니다. 만약 모기업에서 안전보건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공유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같은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은 뒤로 살짝 미뤘을지도 모릅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모기업과 저희 작업장이 모두 더 강한 유대감으로 '안전이야말로 상생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 MINI INTERVIEW



(주)미금엔지니어링  
심문한 대표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전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아무리 긴급 상황이 전달되어도 뛰지 마라. 서두르면서 다시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로 강조해도 근로자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모기업에서 하는 공생협약체 회의는 그런 면에서 항상 안전에 대해 새롭게 깨우치게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안전 교육 이상의 것들이 바로 우리들 안에서 나옵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로자의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귀찮아서 피하려고 했던 안전화도 이제 반드시 신어야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압니다. 이전에도 해왔던 안전 활동이지만,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의 인식 차이는 큼니다. 근로자가 인식 변화를 통해 안전에 대한 활동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 Mini Infographic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초 인증 획득  
사내 7개 협력사 (2002년)



협력업체 2012(7개사) → 2017(7개사)

협력업체 무재해 - 7년간 유지



2015~2016년 2회 연속 최우수 "A"등급 달성

2016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 A등급 (전국상위 10%)

5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2015년 4.3 → 2016년 4.8 달성

협력사 직원 - 만족도



2017년 기관단체, 업체 14개사 지속유지

공생협력 프로그램 협약식

100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2014 ~ 2015년 94점 → 2016년 96점

자체 상생 프로그램 자기진단

#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 안전!

27년간 사업장에서 무재해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초고압 전기를 다루는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들은 직원들이 많지 않은 영세 업체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빨리 빠리가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안전보건 공생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부터는 안전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은 협력사 직원들의 마인드부터 바뀌어 놓기 시작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관리' 시스템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업현장까지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관리체제로 직원들의 안전을 24시간 지키는 든든한 눈이 되고 있다.



대 표 조 환 익 사장, 김 성 암 본부장



설립일 1910년 6월 9일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0번길 13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2조 8700억 원



주요 생산품  
전기



근무인원  
368명



협력업체 수  
8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총 185명 (사내 66명, 사외 119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3년

“

안전관리비를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직원들의 안전장구 지원 용도로  
 쓰지 않으면 다시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니, 가장 중요한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가 탄탄히  
 구비되고 작업환경도 점차  
 개선됐다. 그러자 협력사 직원들도  
 안전의식에 점점 변화를 보이며,  
 모기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 목숨과 직결되는 안전장비가 무엇보다 중요

한국전력공사(KEPCO)는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의 본사 외 14개 지역본부로 나뉘어 '전력수급 안정 도모 및 국민경제발전 이바지'라는 기업 미션을 실현해 가고 있다. 그 중 경남지역본부는 27년간 무재해라는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어 경남 창원으로 달려가 그 노하우를 듣기로 했다. 전기를 취급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중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보통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220V이지만 한국전력과 협력사들이 취급하는 전기는 22.9kV ~ 345kV의 특고압 전기를 다루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화상 등 외상을 입더라도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계속 남게 되는 고위험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 전주 작업과 같이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들이 많아 추락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보다도 안전 의식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밖에 없으며, 안전장비 또한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지역에서 하루에 100건 이상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의 현장관리를 모기업에서 직접 일일이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 그저 공사현장 불시점검 위주의 안전점검 활동과 주입식 안전교육 정도밖에 시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좀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전보건 교육 및 시스템 도입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련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3D업종이라, 젊은 사람들의 기피 현상에 의해 현장근로자들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고, 또 고전압 활선작업이 대부분 고위험 작업이다 보니 현장근로자의 입·퇴사가 빈번한 실정이었다. 이런 환경에 맞는 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가장 먼저 안전장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협력사에 자체적으로 맡겼을 때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전장구들이 헤져도 그냥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것부터 바꾸기로 한 것이다. 안전관리비를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직원들의 안전장구 지원 용도로 쓰지 않으면 다시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니, 가장 중요한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가 탄탄히 구비되고 작업환경도 점차 개선됐다. 그러자 협력사 직원들도 안전의식에 점점 변화를 보이며, 모기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안전관리비로 연 5억을 지원했다.

“

이전에는 건의해도 안 될 거야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기업에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직접 보면서 훨씬 일하는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든든한 느낌이었죠.

###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관리

그런 의식의 변화에 힘입어 다음 단계는 적극적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협력사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기업 활동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잠재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며, 협력사와 공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HSE(보건·안전·환경) 방침을 제정하고 공감대 형성을 넓혀 나갔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세계 전력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보건 안전 환경에 있어서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본사의 경영 철학을 협력업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업체들을 순회하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내실화에 힘썼다. 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산재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현장 근무자 집합 안전교육을 하였으며, 반기별로는 협력사 대표자 안전교육도 시행했다. 또 매주 1회 ‘안전매거진’을 이메일로 발송하며 사고사례, 당부사항, 최근 이슈 등을 공유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이버 교육도 강화해 수강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로 안전교육을 좀 더 쉽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만들어 그 실효성을 높였다.

더 나아가 작업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 시 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사고 제로를 목표로 환경을 재정비해 나갔다. 안전사고는 하나가 발생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연결고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에도 힘썼다. 그 중 현장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불시 점검을 하고 관리가 부실한 업체에는 제재를 가하는 안전순찰(safety patrol)점검 제도를 도입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꾀했다. 다음으로는 현장관리에 혁신을 가했다. 직접 보고 직접 개선한다는 의지로 ‘눈으로 확인하는 관리’를 목표로 공사현장 안전관리 방법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었다. 실시간으로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실화하여 협력사와 합동으로 현장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통했다. “이전에는 건의해도 안될 거야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기업에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직접 보면서 훨씬 일하는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든든한 느낌이었죠.” 안전보건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눈으로 확인하는 관리’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전 지역에 분포한 전력설비 특성상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안전 여부를 즉시 판단하고 조치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안전 점검 요인들인 방호, 안전장구들을 중심으로 사진 촬영을 하여 전송

간접활선작업 smart stick 개발



하면 공사현장 관리시스템으로 받게 되고 이는 감독자 컴퓨터에 뜨게 되어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감독자는 안전 수칙들을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승인을 하거나 반려하여 개선하게 한 후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에 산재하여 있는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하고, 작업 승인시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공간적, 시각적 제약요인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제도를 도입하니 공중별 위험성을 자발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기업에서 직접 현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는 반응이 협력사 대표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협력사 안전교육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27년간 무재해 달성이라는  
협업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협력사 만족도 조사 미진항목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정례화된  
'협력사 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신규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생협력  
프로그램 역시 지속해서 추진해  
우수사례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영세한 협력사의 취약한 부분부터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 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인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다. 또, 신속한 조치로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직원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 그 중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2014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 달성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모기업을 비롯한 48개 협력회사 모두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27년간 무재해를 달성하게 되었다.

### 공생협력을 넘어 상생발전으로!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경남지역본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각도로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중 다른 업체들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안전심리 진단 및 코칭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안전 행동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에 위협요인이 내재하여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심리 힐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웹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심리상태 진단부터 코칭까지 진행되며 직원들의 내면에 있을지 모르는 산재 유발 요소를 발견하고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내부 보상을 확대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을 달성하는 업체에는 내부 경영평가 사업장 가점을 부여하고, 인사평가 시 1단계 상위등급을 부여했다. 그리고 사내 연수원 입소에 우선 승인을 주는 등의 포상 제도를 시행하면서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협력사 방문 실사 결과 '미흡항목'이 있는 업체는 후속 조치로 공생협력단 정기회의시 지속적인 피드백을 시행하며 관리를 해 나갔다. 그 중 취약항목은 차기년도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때 지속 개선과제로 관리해 나간 결과, 협력사들의 만족도가 차츰 향상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는 27년간 무재해 달성이라는 협업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협력사 만족도 조사 미진항목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정례화된 ‘협력사 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신규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생협력 프로그램 역시 지속해서 추진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위험성 작업에 대한 안전 공법개발, 작업자 맞춤형 안전장구 개발 등 근본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개발·보급하여 협력사의 안전관리에 힘써 모기업과 협력회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전력공사 전략경영부 한명철 부장은 밝혔다.

본부장 안전점검





“

앞으로도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힘쓸 것

”



## CEO'S INTERVIEW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김성암 본부장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는 2013년부터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례의 협리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탈피하기 위하여 전력사업이라는 한 배를 탄 협력사에 지속적인 안전관리 기술과 관리방안을 지원한 결과, 협력사 재해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2016년까지 48개 협력사가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공생발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MINI INTERVIEW



대한중전기(주)  
오수영 부장

대한중전기(주)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배전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전기를 취급하는 업체이다 보니, 작업자의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으로 감전, 추락,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많지 않다보니 한 사람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 지상에서 다른 사람이 안전한지 지원해야 하지만 사실상 그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현장안전 관리원을 지원해주자, 작업자들도 마음 놓고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 관련 사고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 만일 외상을 입어 완치가 되더라도 공포심이 남게 돼 다시 복귀하기 어려울 정도로 쇼크가 큼니다. 작업자들은 누구보다 그것을 알기에, 이런 모기업의 지원을 반길 수 밖에 없습니다.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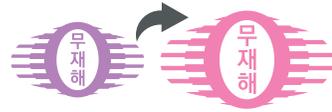
(주)성신이엔지  
장재덕 상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안전장비들이 좀 낡았어도 그냥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바로 바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싶었지만, 경영을 하다 보면 즉시 교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기업에서 직원들의 안전장비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직원들의 모기업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며,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도 점차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빨리 빠리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에 스스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하는 등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한 안전점검 시스템은 휴대폰으로 현장 안전상황을 전송하고 승인받게 되어 있어 직원들의 안전의식도 많이 달라져,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을 우선으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 Mini Infographics



공생협력을 넘어 **상생발전으로!**



협력사 (4배수)    한국전력 (22배수)

**협력사 재해율 - 25.8% 감소**



가공선로 이동식 벌채용 카트 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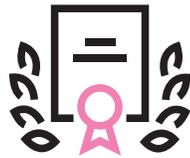
**안전장구 개선·지원**

협력사 대표 10명, 직원 122명



5점 만점 중 **평균 4.3 달성**

**협력사 프로그램 만족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8개 협력사 (2015년)



진단 192명, 개인상담 49명  
시험·측정업무 담당자까지 확대(296명)

**근로자 안전심리 Healing service**

# 안전성과는 우리 사업장의 영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난히 푸르른 녹음에 둘러싸인 듯한 인상을 주는 유한킴벌리(주) 김천공장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매일 10분 하우스킴핑!”이란 슬로건과 마주친다. 22년간 안전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 김정수 부장은 “안전의 제일 기본은 주변의 정리정돈에서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설비 공정’을 기본으로 지역 선도 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에 공을 들이고, 직장의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는 김천공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쉽고, 빠른 방법이 아닌 안전한 방법’이라고.



대 표 최규복 사장



설립일 1980년 3월 30일



위 치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1길 (대광동) 유한킴벌리(주) 김천공장

# 유한김벌리(주) 김천공장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1조 5000억 원



주요 생산품  
화장지, 부직포, 티월 생산



근무인원  
406명



협력업체 수  
총 13개사 (사내 6개사, 사외 7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총 354명 (사내 146명, 사외 208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2년



협력업체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종별 직원들의 분포도에 따른 안전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챙기다 보면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며 상생하게 되는 거죠.

### 안전에 연습은 없다

유한킴벌리(주) 김천공장은 화장지, 부직포, 타월 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도처에 기계작동이나 운반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기계 작동 시 협착사고가 난다든지, 물류 이동 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워단재단 시 재단기에 손이 베일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작업 환경이다. 그러나 김천공단에 들어서자마자 안전에 관해 얼마나 섬세하게 공을 들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곳곳에 안전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구석구석 안내판들이 비치되어 한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장치를 해두었다.

이러한 김천공장은 3년 연속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A등급을 달성한 곳이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닌, 협력업체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교육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종별과 직원들의 분포도에 따른 안전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챙기다 보면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교육이 시스템화되기 전에도 사고가 잦았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해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협력업체의 니즈를 파악하다 보니 진정한 협업의 상생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 바로 ‘맞춤형 감성안전 교육’이 그 비결이었던 것이다. 이는 김천공장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의한 인간존중의 철학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의한 것이다.

### 어떤 성과도 안전을 희생할 만큼 가치는 없다.

3년 연속 A등급을 받는 성과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 교육과 기술지도,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지급, 작업환경개선의 노력에 집중한 결과이다. 먼저 교육과 기술 지도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매뉴얼과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먼저, 사고가 있었다면 직접 도급업체를 찾아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동기를 파악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동기가 여기에 있다. 이로써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위험평가 인증지원’ 시스템을 각 사업장에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안전보



“

4대 필수 안전수칙인 '안전 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행 그리고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방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건공단이 제정한 KOSHA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역시 협력업체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협력업체들은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때 인증기준에 따라 사업자와 경영체제를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점점 해소되며 직원들이 직접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모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김천공장은 13개 협력업체와 안전보건교육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때로 시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임시협의회까지 열며 상호 소통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모기업은 인적·물적 기술과 시스템 지원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능력 향상에 힘썼다. 그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통해 작업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위험 요소를 감소시킴으로써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게 된 것이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선언문을 보면, '유한킴벌리(주)의 비전2020에 따른 사회적 책임 실행을 목표로 모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문화 확산과 무재해 사업장 실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내용은 '첫 번째로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과 운영으로 사회적 책임 실현, 두 번째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그리고 시스템·프로그램 지원, 세 번째로 협력업체 역량향상을 위한 협의체 지속적 운영, 네 번째로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대우와 존중'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며, 현장에 맞는 안전 교육을 위해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을 강조한다. '안전 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행 그리고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거나 노동연령이 높은 곳에서는 각자 이해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했다. 처음에는 각기 다른 수준의 편차를 어떻게 교육할지 참 난감했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주) 김천공장 측에서는 고심 끝에 시각자료를 만들었고, 그 효과는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각 현장에 맞는 교육 방식을 고민할 뿐 아니라 안전에 관한 맞춤형 대안도 제시한다.

전동 지게차 3점식 안전벨트와 LED조명 설치, 위험에너지 차단장치, 차량 고임목 등이 그것이다. 고령의 근로자가 많은 작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퉁이에 LED조명을 설치한 것은 근로자들이 직접 제안해서 보완된 것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OHSAS 18001 공동인증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KOSHA/OHSAS 18001 공동인증)

일시 : 2017년 4월 21일 (금) 장소 :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안전보건공단





사고 없는 행복한 기업을 위해  
‘안전에 종료시간이란 없다’를  
명심하며 방심하지 않고, 안전이  
최고라는 신념 하에 지속적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 우리는 성과 달성을 위해 결코 안전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천공장은 협력업체에 좀 더 전문성 있는 자문을 하기 위해 외부 자문단을 구성했다.

외부 자문단은 외국인을 포함 모두 4명으로 구성해 산업보건의 글로벌 기준을 설명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교육한다. 또 안전보건시스템에 관한 자문과 프로그램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강해주는 역할과 협력업체의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독려와 지원도 한다. 또 소방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전문 기술과 자문도 빠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교육과 기술지도, 그리고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모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자율안전보건 관리능력의 향상으로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되어 이에 관한 공생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런 발전을 이루기까지 무엇보다도 ‘안전보건 공생협력단’의 역할이 중요했다.

13개 협력업체 대표자 또는 근로자 대표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생소했던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대해 공유하고, 위험성평가를 위해 전 임직원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토론했다. 또 교육과 기술 지도에 관해 모기업에 요청 사항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발전 사항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며 상생의 길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모기업인 유한킴벌리(주) 김천공장은 그에 필요한 시설 지원과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했다. 개인 보호구 지급과 사무실 리모델링을 아낌없이 지원한 이유도 ‘무재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였다.

김천공장은 ‘위험평가 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았다. 인증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 것은 ‘유한킴벌리의 역사가 우리나라 위생·건강용품의 역사’라는 본사 철학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를 연속 3회 A등급으



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최고의 안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노력은 무재해라는 업적으로 돌아왔다. 이는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과 소통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남겨주었다. 사고 없는 행복한 기업을 위해 '안전에 종료시간이란 없다'를 명심하며 방심하지 않고, 안전이 최고라는 신념하에 지속적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김천공장은 유한김벌리의 비전 2020의 핵심가치인 '책임과 공헌', '신뢰와 배려', '도전과 창의'라는 기치 아래 소비자 중심의 품질 개선과 친환경적 사업장으로 만들고, 사회공헌 및 가족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그 중 안전한 사업장에 대한 유지는 미래 핵심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한김벌리(주) 김천공장 안전교육실





안전보건 교육을 26년째 담당하고 있는 유한킴벌리 SHE 워크그룹 김천공장 김정수 부장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현장에 맞는 안전 교육을 실행하였더니 4대 필수 안전계획 이행률이 70%에 달하고, 상생 프로그램 평가가 97%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기준에 부합되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안전은 곧 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무재해를 목표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천공장의 달력은 안전교육 일정으로 뺄뺄이 차 있다. 이는 수년간 국내 최고의 안전한 공장이 되는 목표를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증거이다. 안전은 공동으로 나누어야 하는 책임이라며 오늘도 김천공장의 안전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구조구급보관함





“

모기업과의 관계를  
갑을 관계가 아닌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로 변화시켜  
행복한 직장생활을 실현

”



## CEO'S INTERVIEW

### 유한김벌리(주) 김천공장 신 봉 철 공장장

유한김벌리(주)의 핵심가치 중 하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윤리경영, 공정거래, 성실납세, 생명존중, 환경경영, 가족친화경영 등을 통한 책임과 공헌입니다. 생명존중의 가치는 협력사와 하나되는 안전문화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유해·위험요소의 발굴 및 개선, 참여적 안전문화 구축,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안전활동, 법규와 안전규정 준수 등의 5개 항목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되는 안전문화는 협력사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함과 아울러 유한김벌리(주)가 추진하는 모든 안전보건 활동의 총체를 지원할 수 있음을 기치로서 가져감을 또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의 개선은 협력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Top management의 의지는 안전제일을 떠나 인간존중의 틀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행동의 개선 측면에서 2017년에는 People Centered Safety (사람 중심의 안전)을 주요 실행 항목으로 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한 안전문화를 혁신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실행하는 안전보건 문화의 정착과 노력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사와 더불어 상생하는 안전보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MINI INTERVIEW



(주)서울커뮤니케이션  
강창훈 YK관리소장

사실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작은 사업장에서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모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모기업에서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위험평가 인정제, KOSHA 18001 인증제 등을 소개해 주고 이에 맞는 교육을 해주니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 많은 직원도 안전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우리 회사는 평균 연령이 51.2세여서 다소 시력이 어두운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두운 구석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전동 지게차 안전벨트를 3점식으로 교체하는 변화가 생겼지요. 이런 비용을 모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니,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모기업과의 관계도 굉장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감은 모기업과의 관계를 감을 관계가 아닌 가족 같은 직장 분위기로 변화시켜 행복한 직장생활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 MINI INTERVIEW



롯데로지스틱스(주)  
조승봉 센터장

우리 회사는 생산물류 업체로 물품운반이 많아 회사 내에 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행위나 핸드폰 보면서 걷는 것을 오래 전부터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잘 실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기업에서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주신 이후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체감되며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더니, 자율안전보건 관리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심폐소생술 등의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더니 안전 보건책임 강화가 많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기업에서 직접 현장에 맞는 교육을 해주시고, 전문가들의 교육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무재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은 더 철저히 꼼꼼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Mini Infographics



2015 (1배수)      2016 (2배수)

**무재해 -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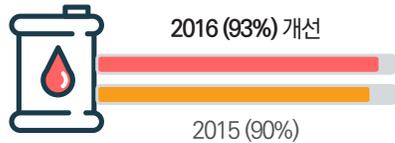
2014~2016년 3회 연속 최우수 "A"등급 달성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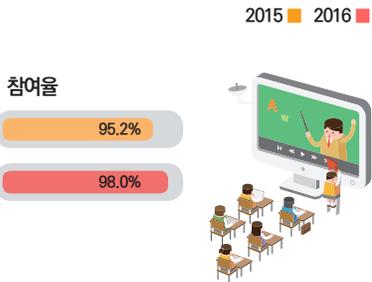
2015 (90%)      2016 (93%)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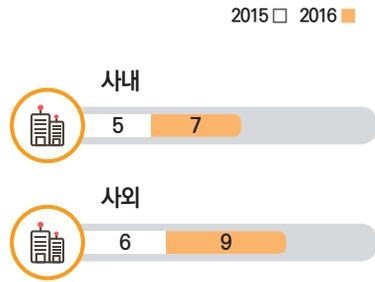
**위험성평가 - 단위설비별**



**위험성평가 - 화학물질**



**자체 상생 프로그램 평가 - 참여율**



**안전보건 공생협력 협의체 - 업체 수**

## 스마트한 공장, 스마트한 안전

(주)효성 창원공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간다. 65개 사내협력사와 사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 그 규모도 굉장하다. 잘 정돈된 느낌의 공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차길과 보행자 도로의 구분이다. 직원들은 바쁘더라도 보행자 도로를 따라 걸어야 하고, 차도 아무 데나 세울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차들은 지도 단속을 한다. 이런 창원공장의 직원들은 회사가 보내는 문자를 자주 받는데, 다름 아닌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문자는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똑같이 받는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문자처럼 따뜻함이 담겨있어, 가끔 답장을 보내는 직원들도 있다고 한다. 산재사고가 줄지 않던 공장에서 무재해 달성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창원공장만의 숨은 노력을 들어본다.



대 표 김규영 대표이사



설립일 1977년 7월 1일(1962년 한영공업(주)회사 설립, 1977년 창원공장 준공)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1 (주)효성 창원공장

# (주)효성 창원공장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2조 735억 원



주요 생산품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전장품, 산업기계류



근무인원  
4086명



협력업체 수  
65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총 2200명 (사내 1340명, 사외 860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2년

“

어제 전무님이 보낸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니 밖에서  
 조경작업을 하는 직원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문자였죠.  
 이제는 공장에 안전수칙 매뉴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행해져 따로 챙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최고경영자가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기업 직원을  
 챙기듯이 대하자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 한계를 극복한 스마트한 전략

(주)효성 창원공장은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외 산업기계류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사내 협력업체 수만 65개사로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해도 사천 명을 넘는다. 이런 큰 규모의 공장에서 안전관리 점검이나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탓에 협력사의 산재 사고가 2011년에 14건, 2012년에 17건 발생하며 사고감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안전보다 생산 위주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안전은 안전부서에서만 하면 된다는 안전불감증을 낳게 하였고, 또 협력사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위험성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은 한계때문이었다.





하지만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효성 창원공장 총괄공장장인 김인길 전무가 직접 안전보건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고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책임경영 실천을 통한 백년기업 효성으로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룹 경영방침에 최우선 가치를 안전으로 삼고 일일이 챙겨나가기 시작했다.

“어제 전무님이 보낸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니 밖에서 조경작업을 하는 직원들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문자였죠. 이제는 공장에 안전수칙 매뉴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행해져 따로 챙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최고경영자가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기업 직원 챙기듯이 대하자, 직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친화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합심하여 만들어낸 시스템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주)효성 창원공장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의식개선 그리고 설비개선으로 나누어 집중적인 지원을 했다. 먼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 확대를 유도해 비용절감 및 사고예방을 유도하고, 사내협력사 안전보건 기술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협력사 안전관리 전문업체인 OK안전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3명의 전담 인원을 배치했다. 또, HSE(보건, 안전, 환경) 방침준수를 엄격히 하여 신상필벌(信賞必罰) 제도를 적용해 HSE RULE 위반 업체에는 경고장 발행 또는 작업중지하며 평가점수에 감점을 주었고, 실적이 좋은 업체는 그에 따르는 포상을 하기 시작했다. 또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대책을 공유해 유사사고 예방에 힘쓰며, 협력사 안전보건부문 평가를 통한 취약 부분 기술지원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건의해도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정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비문제로 개선할 엄두도 못 냈던 안전설비를 모기업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보고, 회사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대기업 다니는 것이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 우리도 대기업 직원들 같아요.

“♡휴일 야간근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급하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선인들의 가르침을 생각하시고, 안전보호구 착용 특히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벨트 걸고리 걸기를 습관화하시길 요청드리며, 마음 속의 안전수칙을 습관화하여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모기업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이와 같이 하트가 찍힌 문자를 자주 받는다. 딱딱한 어투의 지시성 문자가 아닌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문자에 감동해 가끔 답장을 보내는 직원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회사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안전 의식개선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체험교육장 교육을 지원하며 안전마인드 향상에 힘쓴 결과이기도 하다. 또, 안전기술협회 등의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들에게 집체교육을 하며 수준 향상에도 힘썼다. 이러한 교육에만 그치지 않

협력사 대표자 4대안전수칙 선서식



“

협력사 대표자 정기회의시 안전에  
관련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통한 정보 공유로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 안전환경 가이드북 및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소수  
첩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며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도 공을 들  
였다. 여기에는 안전보호구란 무엇이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 필요  
성에 관한 설명부터 법규 준수사항과 실제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것  
들을 꼼꼼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잘 숙지하지 못하고 넘어  
갈 수 있는 사례들을 시각자료로 소개하며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까  
지 친절히 기재해 놓았다. 제공한 안전환경 가이드북과 PSM소수첩  
을 항상 현장점검시 소지하고 자율점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캠페인을 통한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안전보건  
부문 정기평가로 취약 부분에 기술지원을 하는 등 협력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비상사태 훈련으  
로 대처능력과 사고예방 의식 향상, 그리고 근로자 안전의식 변화에  
도 힘썼다. 이 뿐만 아니라, 협력사 신규채용자 및 특별교육 대상자  
들과 모기업 직원이 동일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남 진영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체험안전교육에도 협력사 직원들  
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  
을 아끼지 않았다.

안전에서 우선시 되는 설비개선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감행했다. 차  
단기 시스템 비계 설치, 건조설비 내부 비상탈출 시설 설치 등의 혁  
신적인 설비 개선에 주저하지 않으며 연평균 7억 원 정도의 안전보  
건 비용을 지원했다.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건의해도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정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비용문제로 개  
선할 엄두도 못 냈던 안전설비를 모기업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  
는 것을 보고, 회사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대기업 다니는 것이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은 모기업 덕분에 회사 다닐  
맛이 나게 되었습니다.” 10kg~80kg에 이르는 무게를 한두 사람이  
옮겨야 했던 공정을, 모기업의 지원으로 설비가 개선되며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게 된 협력업체 직원의 이야기였다.





우리 (주)효성은 스마트한 안전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세밀하게 챙기며 소통하는 공생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 공생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더 분발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모기업과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며 산업재해 감소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안전은 단순히 안전부서에서만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작업구역에 위험성이 보이면 관리감독자를 통해 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위험성 개선에 앞장서는 등 자율안전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협력사에 모기업과 동일 수준의 지원으로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하게 만들고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협력업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의식 개선에 중점을 둔 효과가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안전점검 OK, 결과도 OK

창원공장의 사내·외 협력사를 모두 합치면, 약 90개사로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많은 협력사의 안전보건 준수 사항을 모기업이 일방적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으므로, 자발적 관리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위험성평가 지원 활동에 만전을 기했다. 이 지원 활동은 매년 3월 위험성평가 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의 교육을 시작으로, 4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서는 자율안전보건 활동 세부 목표부터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서, 연간 안전점검 계획 등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계획서를 안전환경팀과 OK안전컨설팅에서 보완 검토 한 후 안전환경팀에서는 이행결과 평가를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 설비투자 사항은 현업부서에 개선 및 비용 반영을 요청하여 고위험 등급 중 설비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산재 사고 17건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8건, 2016년에는 사고성 산재 사고 0건을 달성하며,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내·외 협력사 대표, 관리감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2013년 58%에서 2016년에는 73%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 모기업과 협력사 간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 결과 2016년 공생 최우수등급 획득 및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공생프로그램 우수 추진사업장으로 선정돼, 안전한 작업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사별 특징을 고려한 신상필벌(信賞必罰) 제도를 적절히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협력사의 경우 산재보험료 20% 할인, 노동부감독 유예, 교육지원, 안전보건자료 보급 등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독려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통해 위험성 발굴개선과 더불어 인정 획득시 산재보험료 20% 절감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더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2016년 사내·외 협력사 76%(65개 업체)가 인정을 취득하였으며, 미인정 업체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100% 획득을 목표로

채용시 안전교육





두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 감소로 2016년도에는 약 1억 원의 산재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보았다.

(주)효성 창원공장은 앞으로도 협력사에 모기업과 동일 수준의 안전 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체 안전관리 능력 확보와 안전수준 향상, 그리고 협력사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화를 더욱 공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이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인 ‘모기업과 동등 수준의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을 실천해 협력사의 안전관리와 공생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효성은 스마트한 안전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옥외작업이나 제관작업, 또 야간작업 등 고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세밀하게 챙기며 소통하는 공생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안전 주의사항이

사내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현수막



나 준수사항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의 서비스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 공생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할 것입니다.” 창원공장관리본부 조명환 과장은 스마트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으로 더 밝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모기업인 효성과  
협력업체가 상생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

”



## CEO'S INTERVIEW

### (주)효성 창원공장

김인길 전무

(주)효성 창원공장은 201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는 사내 협력업체의 재해 건수가 2012년 17건에서 2016년 0건으로 무재해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효성의 4대 경영방침 중의 하나인 ‘동반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제 확립’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모기업인 효성과 협력업체가 상생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철저히 해 온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업체 자율안전관리 역량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모기업 수준의 안전교육 지원, 고위험 작업장 중점관리, 잠재 위험성평가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INI INTERVIEW



청우기전  
이상종 대표

청우기전은 차단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일부 공정 중 초음파 세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약품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데 장비의 뚜껑을 잘 닫아야 악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이 너무 무겁다 보니 자주 닫을 수가 없었는데,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도입 후 설비개선 지원비용으로 덮개를 슬라이드 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직원들은 이전에는 건의해도 안 될 거야 하는 정서에서 이제는 스스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총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볼트를 조이던 공정 때문에 어깨 결림을 호소하던 직원들을 위해 역시 모기업인 (주)효성 창원공장의 지원으로 자동식으로 바꾸자, 이전보다 모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 MINI INTERVIEW



영진산업  
양영근 대표

우리 회사는 절연 시험 및 비파괴 검사하는 업체로, 작업 공정상 안전에 관해 개선하고 싶은 것들이 한 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용 때문에 선뜻 개선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직원들의 안전의식 개선부터 설비개선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kg에 이르는 무거운 장비를 한 두 사람이 끌어올리는 작업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모기업의 지원으로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기업 부럽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 같으며 회사 다닐 맛이 난다는 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지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마인드도 바뀌게 해, 진정 모기업과 공생한다는 정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 Mini Infographics



2013 (8건)

2016 (0건)

사고성 재해 현황 - 사내 협력사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인정 획득

사내·외 65개 협력사 (2016년)

2013 □ 2016 ■



프로그램 만족도

58% → 73%

사내·외 협력사 공생협력 프로그램 - 만족도

경남안전  
업체 응역인력 1명

OK안전  
업체 변경 후 3명



협력업체 안전보건 지원 인력 강화



안전환경 가이드북



PSM 소책자

의식개선 - 안전가이드북 & PSM소수첩

[백만원 단위]  
2012 □ 2016 ■



연 평균 약 7억 가량 안전보건 투자소요

안전보건 투자 현황 - 투자비용

함께 꿈꾸는 내일

# 02

## 서비스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례집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주)광주신세계백화점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생 발전하는 남양연구소의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인간존중 생산환경 조성,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종업원 평생 건강 프로그램 운영, 무재해 사업장 달성 등 이 5가지 방침은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의 그룹 경영 핵심요소다. 세계적인 규모의 종합 자동차 연구소로서 무엇보다도 안전보건경영을 지속가능한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이다. 2012년부터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모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전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양연구소에서 재해는 찾아볼 수가 없다.



대 표 이원희 사장



설립일 1986년 12월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없음(연구단지)



주요 생산품  
제품기획, 디자인, 설계, 시험, 선행연구



근무원  
11489명



협력업체 수  
총 23개사 (사내 13개사, 사외 10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총 1535명 (사내 863명, 사외 672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2년

“

남양연구소는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이전에는 사내 협력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사업과 활동을  
추진했으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부터는 협력업체 전체로 확대했다.

### 안전사고에 노출된 협력업체에 모범이 되는 남양연구소

1986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지를 매립해 설립한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는 105만 평의 규모로, 현재 약 12000명의 연구 인력이 자동차 개발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며 제품기획, 디자인, 설계, 시험, 시험차제작, 선행연구 등 전세계 시장에 출시하는 현대·기아 자동차 개발을 전담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종합자동차연구소이다.

규모와 인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협력업체 수도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현재 총 24개 협력업체가 있는 남양연구소는, 모기업은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해 위험도가 타 업종에 비해 높지 않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들의 경우 안전 마인드, 관련 지식, 법규 변경 등을 잘 알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교육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총무, 생산관리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약하고





안전관련 대응이 다소 늦어질 때가 있었다.

남양연구소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경영활동과 제품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시스템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외 동시 인증을 획득하는 등 모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문화를 만들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협력업체들에게 모범이 될 문화를 먼저 만들어 안전보건 신뢰성 및 대내외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먼저, 남양연구소는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이전에는 사내 협력사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사업과 활동을 추진했으나, 프로그램을 추진 하면서부터는 협력업체 전체로 확대했다. 운동관리 프로그램, 금연교실, 비만교실, 음주교실, 심리상담 등을 실시했고, 2012년부터는 질환자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의료진을 중심으로 질환자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증진활동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 다양한 안전보건 행사를 실시해 협력업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남양연구소는 2015년에 안전보건강조주간을 운영하고 자율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감성적 체험교육을 활성화했다. 행사는 심폐소생술과 금연 홍보, 보호장비 등의 체험 전시회 운영과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피난 훈련,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전 연극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문화 정착을 주제로 경진대회 등을 진행했다.

연구개발안전환경팀 김성환 사원은 “금연교실, 교통안전 캠페인 등 협력사 안전담당자만이 아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사업 및 활동을 하다 보니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협력사 직원들도 안전과 건강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피난 훈련 같은 경우,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반응이 더 좋았다”고 전했다.



협력사의 무재해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협력사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 협력사 무재해와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 키워드

남양연구소는 협력사의 무재해와 협력사 특성과 현장에 알맞은 안전교육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모기업-협력사의 안전보건 공생발전이기 때문에 협력사 직원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부품생산 업무를 주로 하는 협력사와 달리 모기업의 경우 생산업무가 아닌 자동차 개발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모기업의 업무가 달라 협력사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김 사원은 “공생협력 프로그램 담당자가 되어 협력사 직원들과 많은 스킨십을 하다 보니 모기업 직원 뿐만이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다 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사 직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달 협력사 현장에 나가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전했다.

그린푸드 피난훈련



남양연구소는 무재해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회사와 담당자들이 해줄 수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사 직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해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협력사 특성과 현장에 알맞은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이후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모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단을 구성하고, 위험성평가 이론교육 및 실습, 위험성평가 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계획 수립, 시스템 교육 및 점검 활동 지원 등을 실시했다. 사내·외 협력업체는 위험성평가 추진 TFT 구성, 위험성평가 이론교육 및 실습,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계획 수립 등을 추진했다. 안전보건 공생협회의체는 사내업체와 사외업체, 연구개발안전환경팀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위험성평가 학습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진행했다.

또 협력업체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를 양성해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다. 안전관리자 과정은 신규 공사안전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안전작업허가서 설명, 작업형태별 안전수칙 기준, 중대재해 사고 공유, 안전수칙 위반 테스트 등을 거쳐 인증을 해 안전관리감독자가 협력업체 내에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남양연구소는 안전관리활동 계획 수립 및 평가를 하는 안전협의체와 위험성평가 지원, 안전보건교육 강의 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등을 거쳐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고, 그 결과 협력사의 재해 발생건수가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80% 하락했다.

또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협력사 무재해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불어, 협력사 맞춤형 교육으로 담당자뿐 아니라 직원 전체를 안전전문가로 양성해 현장에 투입해 협력사의 재해발생 건수를 감소시킨 결과, 2014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2016년 공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협력사 안전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협력업체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전보건분야에서 협력사들이 동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협력사 집중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과 공생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맞춤형 교육의 경우 협력사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이었고, 합동 소방피난훈련, 심폐소생술-AED 교육 등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회사에서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육으로 협력사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 직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이제는 모기업에서 협력사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점과, 갑을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협력업체와 공생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0년 무재해 실현이 목표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남양연구소가 모기업과 협력사의 단기적인 안전보건 상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했고, 2016년 모기업-협력사의 상호 신뢰 구축, 2018년 위험성평가인증 전 사업장 취득, 2020년 무재해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했다.

남양연구소는 올해부터 ‘협력업체 안전데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테마를 잡아 협력사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월 안전의 날에 모기업 담당자와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며, 활동을 종합하여 연말에는 자체 시상식을 진행해 포상을 할 예정이다. 남양연구소는 이 제도가 협력사의 안전문화 정착기여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협력사 안전데이의 다음 단계로는 협력사 안전멘토링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프로그램은 모기업 담당자 1명이 각 협력사의 담당자와 소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수많은 협력업체를 모기업



담당자 1명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동종업계 협력사를 그룹으로 묶어 업체간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그룹마다 모기업 담당자를 개별 선정해 그룹 멘토로서 협력사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안전보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진행해 협력사의 무재해를 달성할 예정이다.

남양연구소는 협력사 안전멘토링 제도가 시행된다면 동종업계의 협력사들이 서로의 사업장에 방문해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프로그램 참여 업체들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안전보건분야에서 동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모기업 담당자가 2~3개 협력사만을 집중해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과 공생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협의회 발대식





아울러, 모기업과 협력업체와의 공생을 위해서는 끈끈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랑의 소방용품 나눔 사업'이라는 테마로 지역사회 내 재난취약 구역에 모기업-협력사가 함께 소화기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인 안전보건에 대한 기초 지식 결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 시스템 결여, 대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회와 면담,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을 전달하고, 우수한 운영 사례를 공유해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장 방문 협의회 제도 활성화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및 적극적인 현장 지도에 나서고,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교육 지원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및 최초 취득 기술 지도를 통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향후 2년 내에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을 협력업체 전사가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양연구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재해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모기업-협력사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약속

”



## CEO'S INTERVIEW

###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김태석 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전무)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지원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석 전무입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은 “고객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품질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최고 경영층의 안전 최우선 경영마인드에 맞춰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사업장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2만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고,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불량품이 발생한다면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부품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협력사 하나하나는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한 파트너이고, 파트너인 협력사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부품의 품질도,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협력사 대표들에게도 실천하는 안전보건활동을 당부드리고 있으며, 협력사들도 안전교육/안전점검 등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협력사는 열악한 환경 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당사에서는 사/내의 협력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꾸준히 지원해주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 지원으로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보람도 있었고, 회사간 파트너십도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자동차는 안전보건활동을 통한 모기업-협력사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INI INTERVIEW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나와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졌지만, 시설에 대한 투자나 문제가 된 점검 내용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졌다는 점이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소방훈련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내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어,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와브코코리아  
박계형 팀장



### MINI INTERVIEW



공생협력 이전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프로그램을 추진한 후에 작업장 내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모기업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교육이 큰 역할을 하였고, 회사 내부에서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이후 매일 안전교육을 할 정도로 회사 내에서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직원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협력업체를 직접 만나며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광일이노텍  
정경운 부장

# Mini Infographics



5점 만점 중 평균 4.8 달성

협력사 프로그램 만족도



2013~2016년 4회 연속 최우수 "A"등급 달성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2015년

187

161

26 감소

2016년

개선목표 대비 100% 이행

위험도 평가 - 감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사외 10개 협력사 100% 인증 획득

100



4대 필수 안전계획 - 이행률 100%

2015 □ 2016 ■

1,535명 근무인원

1,535

23개 협력업체

23

안전보건 공생협력 협업체 - 업체 수

# 소통을 통해 만드는 안전 브랜드! SSG (주)광주신세계백화점

그동안 유통서비스 업계에서 '안전'은 다른 경영가치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았다. 하물며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보건은 아예 관심 밖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 온 기업이 있다. 광주·호남 지역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한 최적의 브랜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복합형 쇼핑타운 시대의 개막을 알린 (주)광주신세계백화점이 그 주인공이다.

(주)광주신세계백화점은 22년 전 개점 때부터 지금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밀착기업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의 성장은 구성원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대 표 임 훈 대표이사



설립일 1995년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 (주)광주신세계백화점

# (주)광주신세계백화점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5620억 원



주요 생산품  
유통업



근무인원  
2700명



협력업체 수  
사내 7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사내 250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2년

“

백화점 안전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업무에서 오는 안전보건 위험 즉, 주차차량, 기계 설비, 사내식당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감정노동 근로자들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위험도 백화점 안전보건 위해 요소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 재해에는 경중이 없다!

말에는 경중이 있다. 단어가 가지는 무게는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업재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노동과정에서 생긴 신체상의 재해’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무너지고 터지는 순간을 담은 건설현장과 제조공장의 사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산업재해의 이미지일 것이다.

이렇듯 ‘산업재해’라는 단어가 주는 묵직한 때문에 억울한 업종이 하나 있다. 서비스업 재해가 그렇다.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는 넘어짐, 칼에 베임, 조리 중 화상, 배달 중 교통사고다. 건설업,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붕괴, 화재·폭발과 같은 산업재해의 몸집에 눌러 자칫 등한시될 수 있는 재해들이다. 그 뿐이랴. 감정노동의 증가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재해자의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광주신세계백화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동안 본사 위주의 안전보건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진행한 적이 많았다. 그렇더라도 동종업계에 비하면 안전관리 업무에 많이 투자하는 편이었다. 신세계 본사는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점포별 파견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하면 본사와 즉시 공유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왔다.

지난 201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틀에 맞춰진 프로그램대로 협력사와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했다. 그렇게 2년을 진행하다 보니 예전에 미처 모르고 넘어갔던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협력사 측에서는 안전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모기업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장 직원들 스스로 이야기해봤자 들어주겠나 하는 마음도 있고, 모기업에 밋보이지 않기 위해 쉬쉬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나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가 위험사항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SSG는 현장 근로자가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전 담당자에게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신세계만의 안전 브랜드다.

### 근무자 눈높이에 맞춘 광주신세계의 안전보건 브랜드, SSG(쓱)

이를 위해 (주)광주신세계백화점은 우선 회의체 구성을 월 1회 진행하는 공생협력단 회의 외에도 안전안심회의를 주 1회 진행했다. 안전안심회의는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주관하던 것을 신세계 부점장이 주관함으로써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안전보건 활동에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SSG(쓱)이라는 광주신세계만의 안전보건 브랜드를 만들었다. SSG는 ‘Shinsegae Subcontractor Growth’를 나타내며 ‘신세계와 협력사가 공생하여 발전하고 산재예방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당시 신세계 서비스 브랜드인 SSG(쓱)를 차용했습니다. 안전 담당자가 아닌 이상 위험성평가나 공생협력이니 하는 개념들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부서에 따라 연령대나 업무 성향이 많이 다르다 보니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 프로그램들을 한 단어로 SSG 즉, ‘쓱’으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협력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만 했다. 낯설고 어려운 용어보다는 귀에 익숙한 SSG(쓱)을 통해 눈높이 안전보건 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SSG의 활동 목표는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참여가 아닌, 모기업과 자기업이 협력하여 진정한 소통을 통한 안전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0%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신세계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한 것은 우선 매월 1회 점심시간에 각 협력사들은 돌아가며 대표와 직원들이 만나는 자



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초기엔 서먹해서 밥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현장의 안전관리 어려움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직접적인 지원이다, 협력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한편, 가족들과 행복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놀이동산 회원권 지급, 체험교실 운영, 야구 관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아침 요가, 웃음치료,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 공간, 샤워실 조성 등 근무지 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휴게공간 조성



“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방법을 설명하는  
해설서나 매뉴얼은 책 속 활자에  
그칠 뿐이지만 실천하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 사내 모든 협력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다

“계단을 청소하는 빗자루는 짧은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아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청소하시려면 긴 빗자루가 더 편하지 않으세  
요?”

“계단을 오르면서 청소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계단과 손의 거리도 가까워서 힘이 덜 들거든요.”

여직원 전용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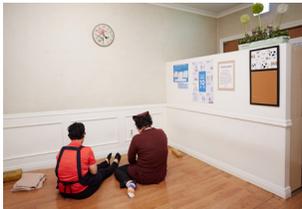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KD 협력사 직원들과 점심 미팅 자리에서 나온 안전이었다. 상식적으로 계단 청소를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며 청소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해 긴 빗자루를 제공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 때문에 청소하기가 더 불편했다는 것이다. 안전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생각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현장과 맞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현장 소장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근무자 본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안 또한 현장 근무자가 잘 알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신세계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근무자 개인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다. 현장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위험 요소를 발굴한 팀에게 월례 조회 시 팀 시상상을 하고, 선정된 의견에 대해서 곧바로 적용은 물론 의견을 낸 직원에게 커피 이용권 같은 간단한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위험성 접수 건수가 2014년 10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84건으로 늘어났으며, 이와 관련해 만족도 조사 결과 2014년 81점이었던 것이 2016년 95점으로 14점이나 올랐다. 특히 2015년에는 협력사 산재 발생 0건을 달성해 SSG 프로그램 운영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협력사와의 관계가 한층 더 편해지고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현업 직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

광주신세계 조선진 팀장은 “프로그램 시행 이후 근무자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을 느낀다”면서 얼마 전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협력사 직원의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을 보고 (주)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한다.



광주신세계는 앞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쓱’을 강화해 올해 안에 6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 및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매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업체에 안전보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모기업이 단순히 수혜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대처하는 것은 곧바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연결된다. 이는 모기업에 대한 충성도, 소속감, 자긍심으로 돌아오고, 이는 곧 업무능률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대형 재난과 사고를 미리미리 방지하는 것 자체가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야 할 이유다.

광주신세계 매장





“  
안전보건으로  
Win-Win  
파트너십 구현  
”



## CEO'S INTERVIEW

### (주)광주신세계백화점

임 훈 대표

(주)광주신세계백화점 경영철학의 골간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듯 기업도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가 조성돼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신세계는 소통 중심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협력사와의 광범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유통산업이 포함된 도소매, 서비스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광주신세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협력업체 분들의 안전보건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협력사와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안전 분야를 기본 관리 대상으로 설정, 공생협력단 활동을 통한 유해, 위험 요인 지속적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제로화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협력회사와의 공생경영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모든 사원 개개인은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MINI INTERVIEW



신세계 푸드  
강 현 숙 매니저

저는 (주)광주신세계백화점의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신세계 푸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직원식당은 늘 화기를 다루고 칼을 쓰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워낙 커서,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관련 사례를 공유하거나 안전사고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전달합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회사의 정해진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모기업에서 지원해 주니까 정말 든든했습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2015년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게다가 '씩이요!'한 마디만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니까 정말 하청업체 직원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변한 걸 느낍니다. 그동안은 매니저로서 직원들이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해도 제 선에서 커트하고 본사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안전과 위생 관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백화점 내 전산망에 안전관리 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두로 전달하던 제안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 MINI INTERVIEW



가디언스 시스템  
박 철 용 주임

가디언스 시스템은 백화점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간에는 고객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야간에는 건물 순찰을 도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씩'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로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현장 근무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점일 것입니다.

일례로 현장 근무자의 요청으로 야간 근무 시 사용하는 LED 랜턴을 지급받고, 락커룸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을 때, 아 우리가 정말 배려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면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안전보건 공생 협력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귀찮기도 하고,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저 스스로도 근무 환경에 안전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본사에 대한 마음가짐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본사 직원들과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서로 스스럼이 없어지고 가까워진 거리만큼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 Mini Infographics



협력업체 2016 (7개사) 무재해 달성

협력업체 무재해 - 4년간 유지 중

유해위험요인 개선 수치



2015년 21건 (100%) 개선

21건

22건

2016년 22건 (100%) 개선

사내 7개 협력사 유해위험요인 - 개선

2012~2013 □ 2014~현재 ■



4

0

공생협력 프로그램 도입 전/후

협력업체 재해율 - 도입 후 감소

협력사 대표 7명, 직원 14명



5점 만점 중 평균 4.5 달성

협력사 프로그램 만족도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인정 획득  
사내 2개 협력사 (2016년)



원활한 소통 수직적 → 수평적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이후 인명 구조

# 갑과 을의 경계가 사라진 비발디파크,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대한민국 국민 4백만 명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찾는 4계절 레저리조트 비발디파크.

그러나 이곳에는 안전하지 못한 감정 근로자 수천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매일 수천, 수만 명의 고객을 대하는 이들에게는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이 담보된 근무환경이 어느 곳보다 절실했다. 특히, 악성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발디파크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게 했고, 모기업과 협력업체라는 갑과 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 나라는 이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줬다.



대 표 최주영 책임자



설립일 1993년 12월 24일



위 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매출액  
1913억 원



주요 생산품  
4계절 종합리조트 (콘도, 스키월드, 오션월드 등)



근무원  
상시 약 1000명, 계절 2500명, 협력 514명



협력업체 수  
총 91개사 (사내 6개사, 사외 85개사)



협력업체 근무인원  
총 1057명 (사내 514명, 사외 543명)



안전보건 공생협력 관련 경영 시작일  
2014년

“

무감각해진 안전의식과  
안전불감증은 서로간의 무관심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협력업체와  
모기업간의 사업장 안전에 관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전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안되어 있어 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캠페인 행사 진행시  
참여율도 저조했고, 안전보건 인식  
부족은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 감정노동자, 당신의 오늘은 안전하신가요?

감정노동자는 손님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여름 물놀이 시즌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한 곳인 비발디파크. 그리고 겨울 스키 시즌에도 가장 붐비는 곳이 이곳이다. 골프, 승마 등 4계절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인 비발디파크에는 한 해 4백만 명이 찾을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 곳이 비발디파크인데, 이곳에는 고객들을 대하는 많은 감정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많은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인 비발디파크는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재해의 강도가 크지 않아 모기업인 비발디파크와 협력업체 직원들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워터파크, 스키



장, 곤돌라 등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들 대부분이 위험 요인이 많은 곳들이어서, 안전보건에 대한 협력이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이 비발디파크였다.

그러나 비발디파크에서 안전보건은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협력업체의 부정적 인식과 안전의식에 대해 무감각했던 이곳에는 위험요소가 발견되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수동적인 태도, 안전보다는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위험한 행동들을 키우는 무관심이 팽배했다. 이는 모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재해의 강도가 크지 않아 모기업에서 지원해주고 협력해줘야 한다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기회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 결여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했으며 서비스 업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 결여로 안전보건에 대한 개념 정립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발디파크 정도현 안전관리팀장은 “이전에는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협력업체와 모기업이 별개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업체 근무 장소에서 문제가 생겨도 각자 알아서 하겠지라는 인식,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도 빠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정 팀장의 이야기처럼 협력업체와 모기업의 업무가 분담되어 공감하지 못하는 안전 문제도 있지만,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했다.

### 안전관리팀 신설해 본격 행동

비발디파크는 2015년 8월에 안전관리팀을 만들었다.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기회 부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 결여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되어 있던 비발디파크는 2015년 8월에 안전관리팀을 신설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생협력 이전의 안전보건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었지만, 지금의 안전보건 활동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관리팀 신설 초기에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조차 몰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를 찾아가 하나부터 열까지 공생협력에 대해 다시 배워 안전관리팀의 방향을 세웠다. 이전에는 다른 업무와 겹치었던 안전보건관리자들은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원 3명으로 팀을 꾸렸고, 내부고객의 안전과 고품질의 서비스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안전관리팀은 협력업체와 함께 주 1회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했고,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캠페인도 실시했다. 또 안전보건박람회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참여해 배울 수 있도록 출장을 지원하고, 직원들을 위한 식단을 개선해 비만,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예방을 위한 샐러드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기존에는 외부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왔던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를 안전관리팀이 직접 실시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설투자, 환경개선비용, 물적지원, 안전보건 관련 비용 등 약 3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안전관리팀의 위험성평가 지원으로 협력업체 중 한 곳이 위험성평가 최초 인증을 받기도 했다.

또 직원 스키 대회 및 체육대회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동참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했고, 모기업 앰블런스, 의무실, 동계시즌 의사 진료 및 건강상담 지원도 이뤄졌다. 아울러, 외주 작업근로자 안전관리 작업 계획서 작성 시 중점 점검사항 지원 등 다각적으로 안전보건을 모기업과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협력업체 작업 환경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개선했다. 안전관리팀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작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직원들의



의식 전환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성과도 있다. 공생협력 프로그램 인증 결과가 2014년에는 C등급이었지만, 2015년에는 B등급, 2016년에는 A등급으로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보여줬다. 이같은 사업 성과를 통해 직원들은 모기업과 함께하는 사업장 순회점검 횟수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었고, 기업과 직원들의 인식이 함께 변화하면서 비발디파크는 무사고 사업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정 팀장은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생협력 이전의 안전보건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었다면, 공생협력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준다”면서 “안전보건활동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 관련 포스터



### 갑과 을의 경계가 사라진 비발디파크

비발디파크는 협력업체가 모기업과 함께 사업장 곳곳의 위험성 도출 및 개선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모기업 시설팀과 영성팀 등 자체 기술력을 동원해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도록 했다. 기존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관계가 함께 위험요소를 찾아보고,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에 더해 사업장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모기업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분야에 대해 한 방향,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강조했다.

수상안전요원



## “

악성고객을 상대할 때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발디파크 전체의 문제입니다.

감정 근로자에게 힘이 되어 줄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영세한 협력업체의 경우 손익증대를 위해 위험요소를 해결하거나 시설에 투자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에 안전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모기업이 먼저 앞장선 것이다.

비발디파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주화 작업의 위험성이 대두되기 전부터 외부협력업체 근로자들에 관한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협력업체간 갑과 을의 존재가 아닌 ‘모든 근로자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한 사람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안전관리팀 송석준 매니저는 “안전보건하면 딱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시나 명령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렇지만 비발디파크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맞춰 안전보건에도 서비스 마인드를 넣었고, 협력업체와 모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버리고, 수직체계가 아닌 수평적 체계를 강조하자 직원들의 참여도도 높아졌고, 안전분야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발디파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비발디파크는 앞으로 감정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특성상 면대면 업무를 피할 수 없는 직원들이 악성고객을 상대하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비발디파크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근무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고객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활동, 감정근로로 어려움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전문상담 지원 등을 통해 감정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다소 소외되었던 직원들의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활동에서 우선시 되는 사고성 위험요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인 감정근로까지도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안전보건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직원들의 만족은 안전보건의 관심과 지원으로 점차 이어질 것으로 비발디파크 측은 생각하고 있다.

또 현재의 활동을 기반으로 협력업체의 무재해 운동 추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사업장 인증을 이끌어 내고, 점차 비발디파크 안전관리팀의 지원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이 정착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비발디파크 콘도미니엄





“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늘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

”



## CEO'S INTERVIEW

###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최주영 본부장

지난 시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수많은 사고들은 결국 우리의 안일함과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을 하청업체 또는 ‘을’이라는 낮은 의미로 받아드리기 시작하면서 협력업체와 안전의 참된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의 관계는 더 이상 낮은 관점이 아닌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늘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객과 직원이 함께 하는 비발디파크에서도 결국 ‘생명존중’이라는 의미를 늘 잊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업체 간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발디파크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고객들과 직원을 위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INI INTERVIEW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전에는 시설관련 지원 요청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원이 원활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안전교육도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지한 상태였지만, 프로그램 추진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인 미팅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들의 안전 의식이 확보되니 직원들 교육도 원활해지고, 협력업체 전체로 안전의식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직원 교육에 꼭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협력업체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모제푸드 (식음료 임대업장)

곽남준 아모제 점장



###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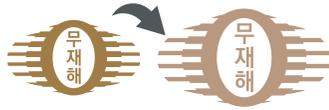


공생협력 프로젝트를 한 이후, 지난 해에 산재가 없었습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 직원들의 관심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워낙 점검을 많이 하니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관심사도 높아졌고, 회사 차원에서 현장 교육을 많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업할 때에도 직원들이 보호장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할 정도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또 위험성평가도 위탁으로 진행했던 것을 모기업에서 지원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DMS (객실, 공용구역 청소업체)

차현용 DMS 파트장

# Mini Infographics



2013 (3건)

2015 (3건)

**무재해 - 달성률**



2015 (B등급)

2016 (A등급) 인증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

5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추진 前

3.73

2.41

1.32 감소

추진 後

**위험도 평가 - 35% 감소**

2014 □ 2015 ■



계절사원

3

0

**재해발생 현황 - 무재해 달성**

2015년 (46명)

2016년 (67명)



**관리감독자 - 확대 및 운영**

2015 □ 2016 ■

업체수

103

85

근로자수

653

543

**사외 단발성 협력업체 및 근로자 현황**



# 03

## 부록

2015 ~ 2016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모기업

'15~'16년도 안전보건 공생협력 참여 모기업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캠	충북지사	충주지청
KB오토시스(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KPX케미칼(주)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OCI머티리얼즈(주)	경북지사	영주지청
OCI(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OCI(주) 광양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OCI(주) 군산공장서울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OCI(주) 포항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S&T모티브(주)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S&T중공업(주) 본사	경남지사	창원지청
STX중공업	경남지사	창원지청
가온전선(주)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가온전선(주) 전주공장	전북지사	전주지청
강남제비스코(주) 안양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강남화성(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갤러리아 백화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청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고려이연(주) 온산제련소	울산지사	울산지청
고려제강(주)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고려제강(주) 하이로프공장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금문산업(주)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금호씨이화학(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금호석유화학(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금호석유화학(주) 울산고무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금호석유화학(주) 울산수지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금호타이어(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금호타이어(주) 곡성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금호플리켄(주) 여수2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금호플리켄(주) 여수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금호피엔비화학(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기아자동차(주) 소하리공장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	경기지사	경기지청
깨끗한나라(주) 청주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남양금속(주)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남양유업(주) 나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남양유업(주) 세종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남해화학(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넥산스코리아(주)	충북지사	청주지청
넥센타이어(주)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넥센타이어(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넥스틸(주)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노벨리스코리아(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노벨리스코리아(주) 영주공장	경북지사	영주지청
농협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농협하나로클럽 부산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뉴모텍(주)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뉴코아아울렛 일산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대덕전자(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대덕지디에스(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대동금속(주)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대동도예(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대림산업(주) 여수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대림자동차공업	경남지사	창원지청
대상(주) 바이오공장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대원강업(주) 창원1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대원강업(주) 창원2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대주중공업(주) 당진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대한유화공업(주) 온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대한유화공업(주)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대한전선(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대한제강(주)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대한제당(주)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대한제지(주) 청주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대한특수금속(주)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덕양산업(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덴스코리아오토모티브(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도레이첨단소재(주) 구미1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도레이첨단소재(주) 구미2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도레이첨단소재(주) 구미3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도레이케미칼(주) 구미1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도레이케미칼(주) 구미2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동국제강(주) 당진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동국제강(주) 부산공장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동국제강(주) 인천제강소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동국제강(주) 포항제강소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동부대우전자(주) 광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동부인천스틸(주)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동부제철(주) 당진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동서석유화학(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동서식품(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동서식품(주) 부평공장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동서식품(주) 진천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동아출판(주) 인쇄안산공장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동양물산기업(주) 익산공장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삼표시멘트(주) 삼척공장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동우전기(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동우화인켄(주)	경기지사	경기지청
동원산업(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동진세미켄(주)	경기지사	경기지청
동희오토(주)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동화정공(주) 화성공장	경기지사	경기지청
두산건설(주) 창원1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두산공작기계(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두산메카텍(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두산엔진(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두산인프라코어(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두산인프라코어(주) 인천공장	중부지역본부	중부청
두산중공업(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디와이오토(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디와이(주) 익산공장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디와이파워(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디케이동산(주)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옥계공장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로버트보쉬코리아(주)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롯데마트(주) 안성점	경기지사	평택지청
롯데마트(주) 월드타워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마트(주) 평택점	경기지사	평택지청
롯데백화점(주) 김포공항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롯데백화점(주) 잠실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VIC마켓 금천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롯데쇼핑(주) VIC마켓 도봉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롯데쇼핑(주) VIC마켓 동탄(신영통)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롯데쇼핑(주) VIC마켓 영등포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롯데쇼핑(주) 강남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청
롯데쇼핑(주) 광복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롯데쇼핑(주) 광주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롯데쇼핑(주) 동래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동래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제주지사	제주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강변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검단점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계양점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고양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구로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구리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군산점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권선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금정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남원점	전북지사	전주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노은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대구울하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대덕테크노밸리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덕소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동래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목포점	전남지사	목포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빈야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분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부평역점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부평점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상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삼산점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상무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대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울역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현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성장점	충남지사	천안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송천점	전북지사	전주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송파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수원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수지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시디세븐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시화점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시흥점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안산점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여수점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여천점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연수점	중부지역본부	중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울산점	경기지사	평택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지사	울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웅상점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의왕점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의정부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익산점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장암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장유점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전주점	전북지사	전주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주영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중계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진장점	울산지사	울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진해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천천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첨단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청라점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청량리지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충주점	충북지사	충주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통영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화성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화성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구리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롯데쇼핑(주)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경북지사	구미지청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VIC마켓 금천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VIC마켓 킨텍스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강변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구로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김포공항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송파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월드컵위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잠실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백화점부문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롯데쇼핑(주) 백화점부문	충북지사	청주지청
롯데쇼핑(주) 백화점부문 강남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청
롯데쇼핑(주) 백화점부문 건대스타시티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백화점부문 김포공항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롯데쇼핑(주) 백화점부문 마산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롯데쇼핑(주) 백화점부문 창원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롯데쇼핑(주) 본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롯데쇼핑(주) 부산본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롯데쇼핑(주) 센텀시티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롯데쇼핑(주) 안산점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롯데쇼핑(주) 안양점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롯데쇼핑(주) 울산점	울산지사	울산지청
롯데쇼핑(주) 인천점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롯데쇼핑(주) 전주점	전북지사	전주지청
롯데쇼핑(주) 중동점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롯데쇼핑(주) 청량리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롯데쇼핑(주) 평촌점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롯데쇼핑(주) 포항점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롯데쇼핑(주) 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롯데일미늄(주) 인천공항	충북지사	청주지청
롯데정밀화학(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롯데제과(주) 대전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롯데제과(주) 양산공장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롯데제과(주) 영등포공장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롯데제과(주) 평택공장	경기지사	평택지청
롯데칠성음료(주) 여수사업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롯데칠성음료(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롯데칠성음료(주) 광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롯데칠성음료(주) 군산공장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롯데칠성음료(주) 안성2공장	경기지사	평택지청
롯데칠성음료(주) 양산공장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롯데칠성음료(주) 오포공장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롯데케미칼(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롯데케미칼(주)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롯데케미칼(주) 여수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롯데케미칼(주) 울산2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롯데키즈마트 부산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롯데푸드(주) 천안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롯데푸드(주) 파스타르공장	강원지사	원주지청
르노삼성자동차(주)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리나이코리아(주)	충북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매그나칩반도체(유) 구미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매일유업(주) 경산공장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매일유업(주) 광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매일유업(주) 청양공장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매일유업(주) 평택공장	경기지사	평택지청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주)	경기지사	경기지청
명신산업(주)천북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목표중앙병원	전남지사	목포지청
목표한국병원	전남지사	목포지청
무궁화전자	경기지사	경기지청
무림SP(주) 대구공장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무림페이퍼(주)	경남지사	진주지청
무림피앤피(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미래나노텍(주)	충북지사	청주지청
미래여성병원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바르질러현대엔진(유)	전남지사	목포지청
보위터코리아유한회사	전남지사	목포지청
블로그코리아(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비에이치아이(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빙그레(주) 도농공장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삼남석유화학(주) 여수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삼목에스폼(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삼성공조(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삼성디스플레이(주)	경기지사	경기지청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1	충남지사	천안지청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2	충남지사	천안지청
삼성디스플레이(주) 천안	충남지사	천안지청
삼성메디슨(주) 구미지점	경북지사	구미지청
삼성물산(주) 직물부문	경북지사	구미지청
삼성에스디아이(주)	충북지사	청주지청
삼성에스디아이(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삼성에스디아이(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삼성에스디아이(주) 구미사업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삼성전기(주) 부산공장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삼성전기(주) 세종사업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삼성전기(주) 수원사업장	경기지사	경기지청
삼성전기(주) 광주사업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삼성전자(주) 구미 1사업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삼성전자(주) 구미 2사업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삼성전자(주) 기흥캠퍼스	경기지사	경기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	경기지사	경기지청
삼성전자(주) 온양사업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삼성전자(주) 화성캠퍼스	경기지사	경기지청
삼성종합화학(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한회사	경북지사	구미지청
삼성테크원(주) 3사업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삼양화학(주) 전주공장	전북지사	전주지청
삼영전자공업(주)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삼우중공업(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삼익THK(주)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삼진정공(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삼화전기(주)	충북지사	청주지청
삼화제지(주)	충북지사	청주지청
삼화페인트공업(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삼신브레이크(주)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삼진개발(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서울반도체(주) 안산D공장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서울식품공업(주)	충북지사	충주지청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서울우유협동조합 제2공장	경기지사	경기지청
사일캐스팅(주)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사진산업(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선진정공(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선창산업(주)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성신양화(주) 단양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성우전자(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성창기업(주)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세메스(주) 직산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세방전자(주)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세방전자(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세아특수강(주) 포항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세플러안산(유)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세플러코리아(유)	경남지사	창원지청
송원산업(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신안종합리조트(주)	강원지사	원주지청
신풍제지(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신한일전기(주)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쌍용양회공업(주) 동해공장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	강원동부지사	영월지청
쌍용자동차(주) 서울서비스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쌍용자동차(주) 창원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쌍용자동차(주) 평택공장	경기지사	평택지청
씨에이치음료(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씨제이제일제당(주) 논산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씨제이제일제당(주) 부산공장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씨제이제일제당(주) 안산공장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씨제이제일제당(주) 양산공장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씨제이제일제당(주) 영등포공장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씨제이제일제당(주) 인천1공장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씨제이제일제당(주) 인천2공장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씨제이제일제당(주) 인천냉동식품공장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씨제이제일제당(주) 진천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씨제이푸드빌(주) 음성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씨제이헬스케어(주) 대소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씨제이헬스케어(주) 오송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아세아시멘트(주) 제천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아세아제지(주) 세종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아시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	경북지사	구미지청
알팩(주)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애경유화(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충북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에스엘(주) 진랑공장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에스케이머티리얼즈주식회사	경북지사	영주지청
에스케이씨솔믹스(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에스케이씨(주) 수원공장	경기지사	경기지청
에스케이씨(주)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에스케이씨하스디스플레이필름(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에스케이에너지(주) 울산 CLX	울산지사	울산지청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충북지사	청주지청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GT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에스케이케미칼(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에스케이하이닉스(주)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충북지사	청주지청
에스케이하이닉스(주)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에스피엘(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에쓰오일(주)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엘에스니꼬동제련(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엘에스메탈(주)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엘에스산전(주) 천안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엘에스엠트론(주)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엘에스엠트론(주) 전주공장	전북지사	전주지청
엘에스엠트론(주) 하이테크센터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엘에스전선(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엘에스전선(주) 구미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에스전선(주) 동해공장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엘에스전선(주) 인동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디스플레이(주)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엘지디스플레이(주) 1단지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디스플레이(주) 23단지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디스플레이(주) 456단지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엠에이(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엘지이노텍(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엘지이노텍(주) 1A사업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이노텍(주) 구미1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이노텍(주) 구미2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이노텍(주) 구미3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이노텍(주) 부품사업부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엘지이노텍(주) 청주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엘지이노텍(주) 파주공장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엘지전자(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엘지전자(주) 구미TV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전자(주) 송라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엘지전자(주) 창원1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엘지전자(주) 창원2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엘지전자(주) 청주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엘이엘씨코리아(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엘케이전자(주)	경기지사	경기지청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성수동공장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여천NCC(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연세대학교 연세유유	충남지사	천안지청
영풍제지(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오비맥주(주) 이천공장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오비맥주(주) 청주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오토리브유한회사 원주공장	강원지사	원주지청
와이케이시스템(주)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우양산업개발(주) 힐튼경주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우양에이치씨(주) 1공장	경기지사	평택지청
우양에이치씨(주) 2공장	경기지사	평택지청
우영산업(주) 경주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유한김벌리(주) 김천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유한김벌리(주) 대전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유한김벌리(주) 충주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주)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이래오토모티브(주) 진천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이수화학(주)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이수화학(주)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이천일이올렛 중계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인지에이엠티(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일양약품(주)	경기지사	경기지청
일진머티리얼즈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일진전기(주) 반월공장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전기초차코리아(주)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진진CSM(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조선내화(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존슨트록스오토모티브코리아(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 팔도이천공장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주)ABB코리아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DCF-TREK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주)KH비텍 2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SFA반도체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STX엔진제1사업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강원랜드	강원동부지사	영월지청
(주)건화창원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경농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경동나비엔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광림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광주신세계백화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주)광주신세계이마트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주)교학사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주)귀뚜라미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금강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네오오도 예산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넥센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주)넥슬론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주)녹수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주)농협사료 경남지사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농협유통	전북지사	전주지청
(주)농협유통창동농산물종합물류센터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주)다스 경주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대구백화점(본점,프라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대명레저산업	강원지사	강원지청
(주)대우에스티 진천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대우인터내셔널대우백화점마산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대웅제약(화성)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주)대한항공 원동기정비공장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주)동부하이텍	충북지사	충주지청
(주)동부하이텍 부천공장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주)동부하이텍 상우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주)동서기공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동서기공 당진지점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동성티씨에스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주)동원F&B 성남공장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동원F&B 창원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동원에프앤비 창원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동천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동화엔텍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주)동희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두산(모트콜BG 창원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두산전자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두산전자사업 익산공장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주)두원공조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디에스시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디와이메틸릭스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료보스타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롯데역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주)롯데월드면세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롯데호텔면세점 인천공항점	중부지역본부	중부청
(주)마니커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만도 Brake사업본부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만도 SUSPENSION사업본부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주)만도 원주공장	강원지사	원주지청
(주)만엔휴엘코리아	강원지사	원주지청
(주)메가마트 울산점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모토닉 대구공장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비에이치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주)빙그레 광주공장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삼양바이오팜 MD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삼양사 전주공장	전북지사	전주지청
(주)삼우금형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삼원강재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사니 대구공장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서연이화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서진오토모티브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성광밴드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주)성담시화 이마트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성엔지니어링(주)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성우하이텍 소주공장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주)성철사 창원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세아제강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주)세아제강 순천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주)세아제강 포항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세아창원특수강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세원테크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세이브존아이앤씨성남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세정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세진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센트랄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신세계 경기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신세계 마산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서울지역본부	서울청
(주)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주)신세계 본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주)신세계 센텀시티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주)신세계 의정부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신세계 인천점	중부지역본부	중부청
(주)신세계무드	경기지사	평택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주)신영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신영외코루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주)신영프레시전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주)신원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신정코넥타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신택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쌍용씨엔비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아모레퍼시픽매스뷰티사업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아모레퍼시픽뷰티사업장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아산성우하이텍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아성프라텍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아워홀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주)에넥스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에스엔엔씨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주)에스트라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에스피에프씨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주)에이스침대 여주공장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엔케이 지사지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주)엘에스엠트론(주)정읍	전북지사	전주지청
(주)엘지생명과학 익산공장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주)엘지생활건강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엘지생활건강 청주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엘지실트론 1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엘지실트론 2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엘지실트론 3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엘지하우시스 옥산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엘지하우시스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엘지하우시스 창호/PSAA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엘지화학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주)엘지화학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주)엘지화학 NCC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주)엘지화학 나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주)엘지화학 오창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엘지화학 익산공장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주)엘지화학 청주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엘지화학 파주공장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주)엘에스오토텍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영풍 석포제련소	경북지사	영주지청
(주)오투기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주)오투기 대풍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주)오리온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오리온 제2공장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주)오스람코리아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올품	경북지사	영주지청
(주)우진플러임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유니드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주)유니드 인천공장	중부지역본부	중부청
(주)유니온 청주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유라코퍼레이션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이랜드리테일 뉴코아 강남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청
(주)이랜드리테일 뉴코아 순천백화점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주)이랜드리테일 불광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주)이랜드리테일 아탑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이마트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이마트 가든5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이마트 기양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주)이마트 감삼점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이마트 강릉점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주)이마트 검단점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주)이마트 경기광주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이마트 경산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이마트 고천점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이마트 과천점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주)이마트 광고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이마트 광명소하점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주)이마트 광산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주)이마트 구로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주)이마트 구미점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이마트 군산점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주)이마트 금정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주)이마트 김천점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이마트 김포한강점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주)이마트 남양주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이마트 대전터미널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이마트 덕이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주)이마트 도농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이마트 동광주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주)이마트 동구미점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이마트 동인천점	중부지역본부	중부청
(주)이마트 동탄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이마트 둔산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이마트 마산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이마트 마포공덕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주)이마트 민촌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이마트 명일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이마트 목동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주)이마트 목포점	전남지사	목포지청
(주)이마트 문현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주)이마트 미아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주)이마트 반야월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이마트 별내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이마트 보령점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주)이마트 봉산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주)이마트 부천점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주)이마트 분당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이마트 사상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주)이마트 산본점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주)이마트 상우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주)이마트 상봉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주)이마트 서부산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주)이마트 서산점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주)이마트 서수원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이마트 성남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이마트 성서점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이마트 성수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이마트 세종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이마트 속초점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주)이마트 수색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주)이마트 수원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이마트 수지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이마트 순천점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주)이마트 시지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이마트 신도림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주)이마트 신제주점	제주지사	제주지청
(주)이마트 아산점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이마트 안동점	경북지사	안동지청
(주)이마트 양산점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주)이마트 양재점	서울지역본부	서울청
(주)이마트 양주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이마트 여수점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주)이마트 여주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이마트 역삼점	서울강남본부	서울강남지청
(주)이마트 연수점	중부지역본부	중부청
(주)이마트 연제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주)이마트 영등포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주)이마트 영천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이마트 오산점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이마트 왕십리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이마트 용산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주)이마트 원주점	강원지사	원주지청
(주)이마트 월계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주)이마트 월배점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이마트 월평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이마트 은평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주)이마트 의정부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이마트 이동점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이마트 이천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이마트 익산점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주)이마트 일산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주)이마트 자양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이마트 전주점	전북지사	전주지청
(주)이마트 제주점	제주지사	제주지청
(주)이마트 죽전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이마트 중동점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주)이마트 진접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이마트 진주점	경남지사	진주지청
(주)이마트 창동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주)이마트 창원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이마트 천안점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이마트 천호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이마트 청계천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주)이마트 춘천점	강원지사	강원지청
(주)이마트 칠성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이마트 통영점	경남지사	통영지청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비산점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중부지역본부	중부청
(주)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산점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이마트 평촌점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주)이마트 평택점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이마트 포천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이마트 포항이동점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이마트 포항점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이마트 하남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이마트 하월곡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주)이마트 해운대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주)이마트 화정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주)이수페타시스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엔케이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주)인포피아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주)일지테크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일진글로벌	충북지사	충주지청
(주)일진제1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전주페이퍼	충북지사	전주지청
(주)전주페이퍼	전북지사	전주지청
(주)정식품 청주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주)정현프랜트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제다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제트에프삭스코리아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중근당 천안지점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지에스이엔알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지에스이엔알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진성티이씨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참프레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주)카프로	울산지사	울산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주)캐스텍코리아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주)케이씨씨 대죽2공장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주)케이씨씨 문막공장	강원지사	원주지청
(주)케이씨씨 세종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케이씨씨 여주공장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케이씨씨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케이씨씨 전주1공장	전북지사	전주지청
(주)케이씨씨 전주2공장	전북지사	전주지청
(주)케이씨텍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케이엠더블유	경기지사	경기지청
(주)케이티 경주지사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케이티 목포지사	전남지사	목포지청
(주)케이티 북광주지사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주)케이티 서광주지사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주)케이티 포항지사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케이티 포항지사 경주지점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케이피에프 충주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주)코스코코리아 대구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코스코코리아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코스코코리아 광명점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주)코스코코리아 상봉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주)코스코코리아 양재점	서울지역본부	서울청
(주)코스코코리아 양평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주)코스코코리아 울산점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코스코코리아 의정부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주)코스코코리아 일산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주)코스코코리아 천안점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태광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주)티씨케이	경기지사	평택지청
(주)티케이케미칼 합성2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티케이케미칼 합성3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파리크라상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주)퍼시스 충주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주)피시픽글라스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주)페코텍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청
(주)평화발레오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포스코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주)포스코대우STS사업부(안산)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포스코엔텍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포스코엔텍 고순도FeSi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포스코캠텍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포스코피앤에스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풍산 부산사업장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주)풍산 울산사업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주)한국남부발전 영월발전본부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주)한국아쿠르트 논산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주)한국인삼공사고려인삼창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주)한국화이바 밀양공장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주)한우소핑 킷텍스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주)한샘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주)한솔홀데코 익산공장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주)한양정밀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주)한화 구미사업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한화 보은사업장	충북지사	청주시청
(주)한화 창원사업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한화갤러리아 센티시티점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한화갤러리아명품관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청
(주)한화셀코리아 인천사업장	충북지사	청주시청
(주)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현대백화점 본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청
(주)현대백화점 부산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주)현대백화점 신촌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주)현대백화점 중동점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주)현대백화점 천호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현대캐피코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주)현대캐피코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주)현대홈쇼핑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호텔롯데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주)호텔롯데 면세점 소공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주)호텔롯데대시티호텔구로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주)호텔롯데대시호텔제주	제주지사	제주시청
(주)호텔롯데월드(호텔리엔)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주)호텔신라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주)호텔현대 경주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주)화승소재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주)화승알엔에이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주)화신 봉동공장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화신 연하공장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주)효성 구미1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주)효성 대구1공장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주)효성 안양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효성 용연1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효성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효성 창원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주)휴비스	울산지사	울산지청
(주)휴비스 전주공장	전북지사	전주시청
(주)휴스틸	충남지사	천안지청
(주)휴켄스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지에스플렉스(주) 강원지청	강원지사	강원지청
지에스칼텍스(주) 여수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지에스파워(주)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지엠비코리아주식회사	경남지사	창원지청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코닝정밀소재(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코리아오토글라스(주)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경산공장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구미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2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김천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코오롱패션머티리얼(주) 김천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코오롱패션머티리얼(주) 대구공장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코카콜라음료(주) 광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코카콜라음료(주) 대구물류센터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코카콜라음료(주) 양산공장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코카콜라음료(주) 여주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주)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타이코에이엠피(주)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타타대우상용차(주)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태광산업(주) 반여공장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태광산업(주) 석유화학3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태광산업(주)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태광실업(주)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토다이수(주)	강원지사	원주시청
파주전기초차(주)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청
평화산업(주)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평화오일필공업(주)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포스코강판(주)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포스코강판(주) 컬러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포스코에너지(주) 발전소	충북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플리미래(주) 여수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피케이벨브(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하나마이크론	충남지사	천안지청
하이트진로(주) 강원공장	강원지사	강원지청
하이트진로(주) 이천공장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	전북지사	전주시청
한국OSG(주)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한국경남태양유전(주)	경남지사	진주시청
한국과학기술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본부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본부	경남지사	통영지청
한국남동발전(주) 영동본부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발전본부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	중부지역본부	중부청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	경남지사	진주지청
한국니도옵티칼(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충남지사	천안지청
한국동서발전(주) 동해하이오화력본부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본부	울산지사	울산지청
한국동서발전(주) 일산열병합발전처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한국마사회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한국바스프(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경기지사	평택지청
한국세큐리티(주)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한국세큐리티(주) 익산공장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한국솔베이(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	전북지사	전주지청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	강원지사	강원지청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한국신철공업(주)	경기지사	경기지청
한국쓰리엠(주) 나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한국쓰리엠(주) 화성공장	경기지사	경기지청
한국알박(주) 평택공장	경기지사	평택지청
한국알박(주) 현곡공장	경기지사	평택지청
한국알프스(주)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한국엔겔기계(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한국엔에스케이(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경남지사	창원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충북지사	청주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경남지사	창원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충북지사	청주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경기지사	경기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강원지역본부	강원지사	강원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남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동부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북부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서부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서울지역본부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성동전력지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성동지사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성서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중부전력지사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한국전력공사(전기업) 한전부산본부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한국제강(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한국제재(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한국주철관공업(주)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처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발전처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본부	경북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한국지엠(주) 군산공장	전북서부지사	군산지청
한국지엠(주) 보령공장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한국지엠(주) 부평공장	중부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한국지엠(주) 창원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한국철강(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한국타이어(주) 금산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한국타이어(주) 중앙연구소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한국타카타(주)	경기지사	경기지청
한국프랜지공업(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한국프랜지공업(주) 제2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남지사	진주지청
한라바스테인공조(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한우소평(주) 현대백화점 목동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한우소평(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청
한미정밀화학(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한솔개발(주)	강원지사	원주지청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한솔제지(주) 장항공장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한솔제재(주) 천안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한솔테크닉스(주)	충북지사	청주지청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한온시스템(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한일제관(주)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한전본사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한화디펜스(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한화시스템주식회사	경북지사	구미지청
한화엘앤씨(주) 세종사업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한화중합화학	울산지사	울산지청
한화첨단소재(주) 세종사업장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한화첨단소재(주) 음성사업장	충북지사	청주지청
한화케미칼(주)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한화케미칼(주) 울산1	울산지사	울산지청
한화케미칼(주) 울산2	울산지사	울산지청
한화큐셀(주) 음성사업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한화테크윈(주) 제2사업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한화테크윈(주) 제3사업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한화도탈(주)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골프장	제주지사	제주지청
해성디에스(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해태제과식품(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해태제과식품(주) 대구공장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해태제과식품(주) 광주공장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현대(MOBIS)(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현대그린파워	충남지사	천안지청
현대기아기술연구소	경기지사	경기지청
현대다이모스(주)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현대로템(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현대로템(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현대모비스(주) 김천공장	경북지사	구미지청
현대모비스(주) 아산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현대모비스(주) 창원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현대모비스(주) 천안IP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현대비앤지스틸(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현대성우메탈(주) 충주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현대성우솔라이트(주) 경주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주) 포항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현대성우캐스팅(주) 포항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현대아이에이치엘(주)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현대엘리베이터(주)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현대엘시트(주)	충남지사	천안지청
현대오일뱅크(주)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현대위아(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현대위아(주) 창원5공장	경남지사	창원지청
현대자동차(주) 남부서비스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현대자동차(주) 수원서비스센터	경기지사	경기지청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울산지사	울산지청
현대자동차(주) 원호로서비스센터	서울서부지사	서울서부지청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전북지사	전주지청
현대제철(주)	울산지사	울산지청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	충남지사	천안지청
현대제철(주) 순천냉연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현대제철(주) 순천단조공장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현대제철(주) 예산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현대제철(주) 인천공장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현대제철(주) 포항1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현대제철(주) 포항2공장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현대종합합특수강(주) 포항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현대중공업(주) 음성공장	충북지사	충주지청
현대파워텍(주)	대전지역본부	보령지청
호텔신라제주호텔	제주지사	제주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기양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계산점	충북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구월점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대전탄방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동촌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면목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문화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방학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부산반여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서면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신도림점	서울지역본부	서울관악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안산고잔점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아탑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인하점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장림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전주완산점	전북지사	전주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중계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중동점	경기충부지사	부천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천안신방점	충남지사	천안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청주성안점	충북지사	청주지청
홈플러스스토어즈(주) 해운대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홈플러스(주) 가야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홈플러스(주) 가좌점	충북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홈플러스(주) 강동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홈플러스(주) 강릉점	강원동부지사	강릉지청
홈플러스(주) 거제점	경남지사	통영지청
홈플러스(주) 경주점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홈플러스(주) 계룡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주) 고양터미널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홈플러스(주) 광양점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홈플러스(주) 광주계림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홈플러스(주) 광주하남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홈플러스(주) 김제점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홈플러스(주) 김포점	경기동부지사	부천지청
홈플러스(주) 김해점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홈플러스(주) 남구점	울산지사	울산지청
홈플러스(주) 남대구점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홈플러스(주) 남양주잔점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홈플러스(주) 내당점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홈플러스(주) 대구수성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홈플러스(주) 대구스타디움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홈플러스(주) 대구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홈플러스(주) 대전기오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주) 대전둔산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주) 대전탄방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주) 동광주점	광주지역본부	광주청
홈플러스(주) 동구점	울산지사	울산지청
홈플러스(주) 동대문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청
홈플러스(주) 동대천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주) 동수원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홈플러스(주) 동창점	충북지사	청주지청
홈플러스(주) 마산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홈플러스(주) 목포점	전남지사	목포지청
홈플러스(주) 밀양점	경남동부지사	양산지청
홈플러스(주) 병점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홈플러스(주) 부산감만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홈플러스(주) 부산연산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홈플러스(주) 부산관림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홈플러스(주) 부천상동점	경기중부지사	부천지청
홈플러스(주) 부천사서점	경기중부지사	부천지청
홈플러스(주) 부천여월점	경기중부지사	부천지청
홈플러스(주) 복구점	울산지사	울산지청
홈플러스(주) 복수원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홈플러스(주) 분당오리점	경기동부지사	성남지청
홈플러스(주) 상안점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홈플러스(주) 서귀포점	제주지사	제주지청
홈플러스(주) 서대천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주) 서부산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지청
홈플러스(주) 서울상봉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홈플러스(주) 성서점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홈플러스(주) 세종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주) 센텀시티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홈플러스(주) 송탄점	경기지사	평택지청
홈플러스(주) 순천점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홈플러스(주) 순천풍무점	전남동부지사	여수지청
홈플러스(주) 송의점	충북지역본부	충부청
홈플러스(주) 신내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홈플러스(주) 아시아드점	부산지역본부	부산청
홈플러스(주) 안동점	경북지사	안동지청
홈플러스(주) 안산점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홈플러스(주) 안중점	경기지사	평택지청
홈플러스(주) 영등포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남부지청
홈플러스(주) 영주점	경북지사	영주지청
홈플러스(주) 영통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홈플러스(주) 오산점	경기지사	평택지청
홈플러스(주) 오창점	충북지사	청주지청
홈플러스(주) 울산점	울산지사	울산지청

사업장명	공단기관	지방관서
홈플러스(주) 원주점	강원지사	원주지청
홈플러스(주) 월곡점	서울북부지사	서울북부지청
홈플러스(주) 유성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주) 의정부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홈플러스(주) 익산점	전북서부지사	익산지청
홈플러스(주) 인천청라점	충북지역본부	인천북부지청
홈플러스(주) 일산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홈플러스(주) 잠실점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지청
홈플러스(주) 전주효자점	전북지사	전주지청
홈플러스(주) 초치원점	대전지역본부	대전청
홈플러스(주) 죽도점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홈플러스(주) 진주점	경남지사	진주지청
홈플러스(주) 진해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홈플러스(주) 창원점	경남지사	창원지청
홈플러스(주) 천안점	충남지사	천안지청
홈플러스(주) 청주점	충북지사	청주지청
홈플러스(주) 춘천점	강원지사	강원지청
홈플러스(주) 칠곡점	대구지역본부	대구청
홈플러스(주) 킨텍스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홈플러스(주) 파주문산점	경기북부지사	고양지청
홈플러스(주) 평촌점	경기서부지사	안양지청
홈플러스(주) 포천송우점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지청
홈플러스(주) 포항점	경북동부지사	포항지청
홈플러스(주) 풍무점	경기중부지사	부천지청
홈플러스(주) 합정점	서울북부지사	서울서부지청
홈플러스(주) 해운대점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청
홈플러스(주) 화성동탄	경기지사	경기지청
홈플러스(주) 화성향남점	경기지사	경기지청
홈플러스(주) 홈딩스주식회사	경기지사	평택지청
홈플러스(주) 홈랜드(주)	경기지사	평택지청
환영철강공업(주) 당진공장	충남지사	천안지청
효성구스프링스(주)	경남지사	창원지청
희성전자(주) 대구공장	대구서부지사	대구서부지청
희성축매(주)	경기서부지사	안산지청

2017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례집

# 공생과 협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다

원·하청 안전보건 세어링

---

**발행일** 2017년 6월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052. 7030. 617 1644, 4544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식회사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시려면 우리 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2017